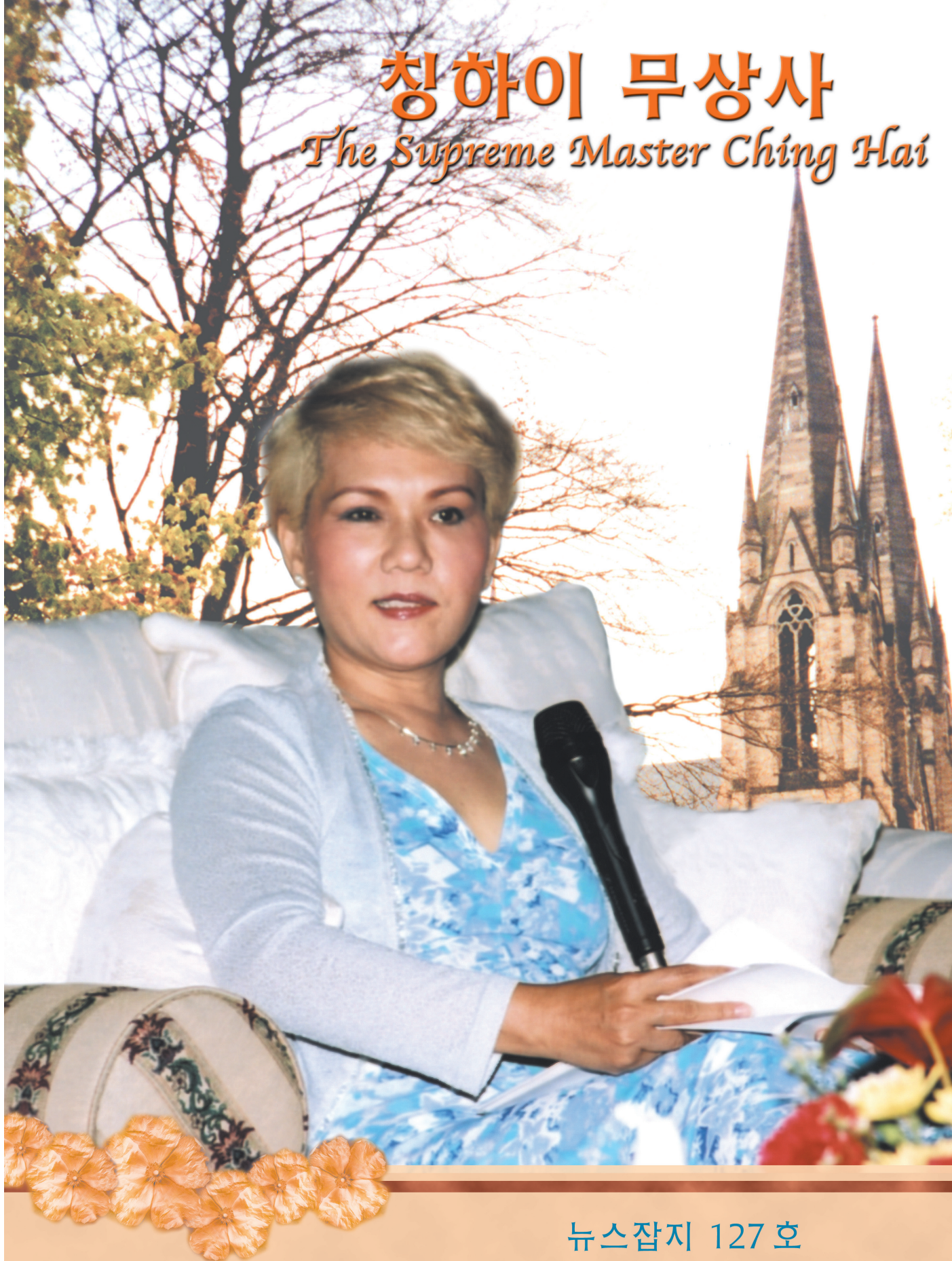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27 호

인생은 진리를 향한 여정

창하이 무상사/ 1997. 8. 24. 영국 런던 국제선사 (원문 영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낱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명상할 때 신에 완전히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신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 아니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조차 어려워지지요. 보통 신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신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문제들을 극복하고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을 기억하고, 눈만 감으면 바로 신을 볼 수 있도록 매일 명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 바로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천 번의 윤회를 거치고 수백만 년 동안 이 세상을 돌고 돌았으므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 기억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입니다. 신과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과 하나라는 건 바로 우리가 신이라는 말이지요. 최소한 신의 자녀로서 신의 품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든 그 부모와 닮은 유사성, 즉 부모의 DNA 형질이나 혈액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요. 우리가 신 또는 신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공룡에서요? 그럼, 공룡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그러다보면 또 다시 그 근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나 또한 고통과 압박을 받을 때는 그 점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래야만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잊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희생인 셈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 고생하는 건 괜찮지만 마음을 잃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신을 찾기 위해 입문을 했다는 건, 그리고 직장이나 가정 문제,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여기까지 와서 신을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는 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값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기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신은 압니다! 신은 우리 마음을 알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자신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요. 빛과 소리는 단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쨌든 신은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신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신을 믿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지만 그들의 갈망은 더 이상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갈망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신을 갈망하는 이상 우리에게 축복이 있으며, 신과 연결 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니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명상하면서 체험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마도 최악의 체험입니다. 기대라는 것은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운 정신을 꺾어 오히려 비전을 보는 데 정말 큰 장애가 됩니다.

TV 앞에 앉았을 때 다른 문제에 정신을 빼앗겨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책을 볼 때 그 단어를 정확히 알면서도 이해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겁니다.

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나치게 조급해 하거나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삶을 돌파해 나가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장애를 헤치고 일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천국의 자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인생에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음 번엔 2배의 이자가 붙을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지요! 상황은 점점 악화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매번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마다 장애물은 자꾸 붙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윤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해결이 날 때까지 지난 생보다 더 많은 문제들과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정말 스승의 축복이나 스승의 힘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업에 현재의 업, 미래의 업까지 처리해야 하니까요! 세상에! (스승님이 고개를 강하게 흔드시다.)

여러분은 내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나에게도 다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강도가 더 높거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하지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 역시 자신을 추스르며 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승 노릇이 쉬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스승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한 번 물어보세요. 하지만 나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적인 문제죠. “그는 내 자식”, “그건 내 일”이란 식으로 문제를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로인해 때때로 나는 질식할 것만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두 열심히 분투해야 하며, 결국에는 해낼 것입니다. 지금도 해내고 있는 중이니, 곧 성공할 것입니다!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말씀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27/mt.htm> (포모사)

<http://Godsdirectcontact.org/eng/news/127/mt.htm> (미국)

앞표지 안 / 스승님 말씀

인생은 진리를 향한 여정

2 다채로운 이벤트

캐나다/미국/한국/포모사

6 / 20 / 28 지혜어록

인생의 본질/생각의 힘으로 세상을 개선시키자/신의 사랑을 나누자
평화와 사랑의 길

7 관음사자의 여행일지

예기치 못한 영적 수확/방법이 올바르면 빛은 자연스레 온다

8 시

명상과 나/천상의 집을 찾아

9 수행의 길목에서

신성한 일의 의미/사랑에는 논리가 필요 없다

11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생의 기점일 뿐이다

13 / 14 / 15 감로범어

17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18 골라 뽑은 수행문답

깨달음은 영원한 평화를 가져온다/전쟁을 끝내는 방법

21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22 스승님의 농담

들통난 거짓말/너무 부지런해도 탈!/영수증의 목적

23 영성과 과학

머리카락 한 올의 진실

26 / 34 사랑의 실천

자비로우신 스승님께서 아픈 난민들에게 사랑의 10만 달러를 기부하시다
유럽 동수들의 사랑/진정한 사랑 속에 고통은 사라진다
스승님의 사랑의 선물/SMCH의 '9.11 재난' 구호활동 지출내역

32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DVD/오디오 테이프

33 신기한 감응

참사에서 구출된 동수들/또 다른 사례/스승님은 이미 안배해 놓으셨다!

39 매체 보도

뉴욕 뉴스데이/연합일보/오를랜드 트리뷴

42 관음 웹사이트

43 전 세계 연락처

48 이야기 세상

천국과 같은 주방/육체적 장애를 넘어

뒷표지 / 무상 예술

해피요기 세상/선 예술의 신세계



우리는 자신을 구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명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27호

출판일자 : 2002. 4. 20.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2202-809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소식

복음을 나누다

[온타리오 런던] 런던 센터는 2001년 6월 16일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기쁜 공개 세미나 행사를 개최했다. 관음사자의 도움을 받아 모두 행복하고 기운이 솟았다.

세미나의 질의 응답 시간에 참석한 사람들은 매우 열성적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한 동수의 말에 의하면 이전 세미나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고 한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참석자의 반이 남아 방편법을 배웠다.

또한 우리는 축복 속에 용선 축제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6월 세미나와 8월 25일의 용선 축제에 이어 또 다른 세미나가 예정 중이었다. 온타리오 런던에서 열리는 용선 축제는 비영리 행사로 개최되며 경비는 지방 자선사업 지원에 쓰이는데, 올해에는 캐나다 여러 도시에서 40여 개 팀이 참가했다. 축제 시작 전, 행사가 진행되는 이들 동안 비가 내릴 확률이 높을 거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신의 축복으로 화창한 날씨 가운데 용선 경주가 진행되었으며 경주가 끝난 후에야 폭우가 쏟아졌다.

우리 부스는 스승님의 책자가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주로 예정된 세미나 안내 전단을 가져갔는데, 한 여성은 부스 앞에서 전단을 읽고는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왔던 것을 이제야 찾았노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딸에게 줄 전단과 견본책자를 요청했다.

우리와 인접한 부스에서 자신의 무술 단체를 홍보하고 있던 한 남자는 예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스승님의 사진을 봤으며, 다음 번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으면서 관심을 갖고 전단지까지 가져갔다. 한 노부부도 스승님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알베르타에 살고 있는 며느리가 관음법문 수행자라며 스승님의 법상 옆에서 사진을 찍은 후 며느리에게 부쳐줄 거라고 했다. 이 날 축제 동안 우리 부스에는 많은 관심들이 쏟아졌는데, 우리는 이런 대중적인 행사 참가가 스승님의 메시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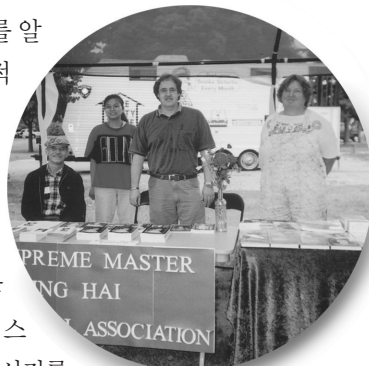
전하고 다음 세미나를 알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개최된 세미나에는 폭넓은 연령층과 민족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스승님의 우주적인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승님의 말씀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형식을 약간 바꾸었다. 본 세미나 시간을 줄였는데, 먼저 스승님의 TV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30분간 방영된 프로그램은 남아공 세계종교회의에 참석하신 스승님에 관한 뉴스 보도, 스승님의 강연, 스승님의 할리우드 음악회 등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세미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참석자들 대부분이 끝날 때까지 함께 했으며 질의 응답 시간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했으며, 대부분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세미나가 끝나자 스승님의 가르침에 큰 관심을 갖은 사람들은 스승님의 책자를 가져가며 우리에게 고마워했다. 그 다음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방문해 단체명상에 참석하고 비디오 테이프를 추가로 빌려갔다.

새로운 한 방법법 수행자는 스승님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동안 매우 고양되었고 편안했으며,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바가 많아 스승님을 매우 존경한다고 말했다. 25년 동안 스승을 찾아 헤매다 마침내 스승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또 다른 사형은 입문에 대한 갈망으로 이번 세미나 동안 관심사를 제기하곤 했다. 그는 농장에 쥐가 많아서 쥐뿔을 놓아야 했는데, 동수들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는 세미나에서 돌아와 쥐들에게 농장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하자 놀랍게도 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는 또한 하루 30분 명상으로는 미진한 생각이 들고 명상이 너무 하고 싶어서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못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제2회 국제 거리 축제

[산호세]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산호세 센터는 최근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인 캘리포니아 주 씨니베일의 제2회 연례 국제 거리축제에 참가했다. 2001년 9월 22일 씨니베일 도서관과 파크 앤 레크레이션부 주최로 열린 이 축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단체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올해 축제는 9.11 참사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민족간의 화합과 포용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반영되었다.

이런 화합과 평화의 분위기 속에서 산호세 센터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채식음식을 소개했다. 우리 부스는 축제 참가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채식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채식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채식음식을 시식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주 정정해 보이는 한 노부인이 우리 부스에 와서 채식음식이 맛있는지 묻자, 우리 동수는 맛이 없으면 기꺼이 환불해 주겠노라고 대답했다. 잠시 후 그 부인이 돌아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거리의 진열대에서 가져온 스승님의 견본책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띤 얼굴로 “음식이 아주 맛있었어요!” 하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음식을 다시 맛보거나 가족들을 위한 음식을 사기 위해 다시 들렀다. 산호세 센터는 이날 채식음식 판매대금 800달러 전액을 뉴욕 구조활동에 기부했다.

산호세 센터는 또한 이 축제를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삼았는데, 축제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어울라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및 스페인어로 된 견본책을 가져갔다. 축제 후 며칠이 지났을 때 한 인도 출신 남자가 우리 채식 식당에 찾아와 방편법을 배우고 싶어했다. 어떻게 방편법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묻자 그는 씨니베일 축제 당시 진열대에서 우리 식당과 방편법을 알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방편법의 이로움을 알고 있음이 분명

했다. 그렇기에 그 다음 주에 아내를 데려와 방편법을 배우게 하고 매주 단체명상에 열심히 나오고 있는 것이다.

스승님, 이 세상에 베풀어주신 당신의 한없는 축복과 수많은 아름다운 선물에 감사 드립니다!

신의 사랑이 남부 캘리포니아에 비추다

[애너하임] 2001년 9월 29일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오후, 동수들은 디즈니랜드의 고향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중앙도서관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입문자들은 스승님의 책자와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 예술 창작품을 전시하고 참석자들에게 채식 샌드위치와 커피 등 다양한 간식과 음료를 제공했다. 일부 입문자들은 9.11 미국 참사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옷깃에 빨강과 흰색, 청색의 리본을 달았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1999년 유럽 순회강연 중 ‘어린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자’란 스웨덴 스톡홀름 강연 비디오를 방영했다. 처음에는 최근 발생한 참사의 영향으로 청중들의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아 있었지만, 스승님의 말씀과 지혜, 자비심에 깊이 빠져들면서 스승님의 충만한 사랑이 이내 강연장의 암울한 분위기를 바꿔 놓았다.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방편법을 배워 많은 입문자들과 함께 단체명상을 했고, 새로운 수행자들의 수행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끝난 후 강연회는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다.



한국 소식

2001년 채식의 날

[서울] 많은 동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속에 9월 23일 채식의 날 행사가 한국 채식연합의 주관으로 서울 인사동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 및 관공서에서의 채식 식단 제공의 필요성에 관심이 모아졌다. 여러 단체 대표들은 편중된 육식문화가 젊은 세대들의 채식문화 수용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차세대들이 채식의 중요성과 생명의 존엄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각급 학교와 관공서는 채식 식단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센터 연락인이 '채식과 명상' 주제 연설을 통해 수행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채식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인천 환경 연구센터 대표의 '채식은 왜 차세대의 최선책인가' 설명에 이어 제철 안식일 교회의 목사는 건강과 영적 수행의 관점에서 본 채식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 외 사찰음식으로 잘 알려진 적문 스님이 현대사회와 사찰음식에 대해 강연했으며, 한국 채식연합 대표는 학교에서의 채식 급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동수들은 이 날 행사에서 사회와 오디오 장치 및 무대 설치, 공연 등 행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돕기 위해 많은 지원을 했다. 또한 서울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지터브의 채식음식을 맛보기 위해 하루 종일 방문객들의 줄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를 주목한 KBS와 MBC 등 주요 방송국은 몇몇 동수들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채식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견본책을 받는 등, 육체적, 영적으로 고양될 수 있는 축복받은 기회가 되었다.

사랑의 깨달음

[서울] 2001년 9월 1일에서 18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 갤러리에서는 청하이 무상사 '사랑의 깨달음' 그림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서울의 유명 갤러리 중 하나인 인사 갤러리는 보통 2, 3달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 뜻밖에도 예정되었던 행사가 취소되면서 스승님의 훌륭한 그림들을 전시할 수 있었다.

동수들의 열성적인 도움 덕분에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동수들은 이번 행사를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포스터를 붙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카탈로그와 전시회 초청장은 전문 아트 디



채식의 날, 동수들이 준비한 채식음식을 사식하기 위해 몰려든 많은 사람들



주요 방송사인 MBC 및 KBS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동수들



렉터가 제작했는데, 스승님의 그림을 극찬한 그는 자신의 잡지에 스승님의 작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시회 당일 전시회장은 벽에 걸린 천상의 그림에서 나온 스승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입장했다. 많은 관람객들은 칭하이 무상사의 예술적 조예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포스터와 그림에서 뿜어 나오는 영적인 축복과 온화하고 따스한 자장에 매혹되어 그림 주문이 쇄도했다. 관람객들은 그림들을 통해 영적인 고양감을 맛보았는데, 특히 ‘동굴(Stone Cave)’에서 나오는 눈부신 빛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일주일 동안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예술가들에게 스승님을 알리는 좋은 계기였으며, 전시회가 끝난 후 우리는 스승님의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상설 갤러리가 있으면 정말 멋지겠다고 생각했다.



국회의원 사오 진란 씨가 행사 연설을 하고 있다.



았으며 피아노와 바이올린 협주는 음악 애호가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선사했다. 또한 힘찬 목소리로 온 강당을 울린 테너의 공연도 훌륭했고 경쾌한 민속 춤에는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공연은 하프와 플루트 연주로 절정을 이루었는데, 로맨틱한 음률이 현장을 고조시킨 가운데 이 음악의 대화를 마무리지었다.

이번 동수들의 공연은 일종의 흥법활동이었다. 진선미의 예술 공연은 참석한 청중들의 영혼을 한 차원 높이 끌어올렸으며, 신세기 수행자들의 생기있고 명랑하며 긍정적인 창조적인 공연을 보여 줌으로써 과거 수행자에 대한 보수적이고 엄숙하며 딱딱한 인상을 쇄신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 사오 진란 씨는 행사 연설에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이 아마추어 예술 애호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수준의 공연을 보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번 동수들의 성공적인 공연은 청중들에게 있어서 초가을 오후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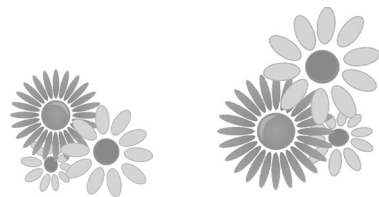
포모사 소식

음악 예술의 향연

[까오슝]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사랑의 바다 예술 공연단’은 공익활동과 음악 및 예술에 관심있는 동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해 창단한 이 공연단은 이후 킨먼 양로원과 킨먼 교도소에서 두 차례의 자선 공연을 가졌으며 까오슝 파리아오 여자 교도소와 킨먼 현립 문화센터에서도 공연을 한 바 있다. 그 중 ‘사랑의 바다 무용단’은 포모사 7개 도시의 주최로 열린 무용 경연대회에서 민속춤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일련의 대중 공연을 가진 후 사랑의 바다 공연단은 국내에서 꽤 높은 인지도를 갖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국립 과학기술 박물관의 정식초청을 받아 2001년 9월 22일 트라이앵글 강당에서 공연을 했다. 포모사 까오슝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창조, 과학, 예술 및 인문 전시물 등을 총괄 전시하고 있는 곳으로서 종종 유명 예술 단체를 초청해 공연을 열고 있다.

세밀하게 계획된 행사는 중국 지터 연주로 서막을 올렸다. 이에 이어진 합창은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





꽃꽂이 강습회

[핑퐁] 바쁜 도심생활에서 우리는 주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여유가 없기 마련이다. 그래서 핑퐁 현정부 문화국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련의 지역 문화활동을 했다. 핑퐁 현 린루오 향 환경보호 촉진협회 수 이사장은 이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꽃꽂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카오핑 센터에 이 의미 깊은 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세밀한 계획과 준비 끝에 유럽 및 미국식 화예에 정통한 리 사저가 강사를 맡아 9월 6일부터 3개월 간 ‘꽃꽂이 강습반’이 정식으로 개강하게 되었다.



핑퐁 현정부 문화국 부국장 추 엘리양 씨의 연설



꽃꽂이 강습반의 리 사저와 학생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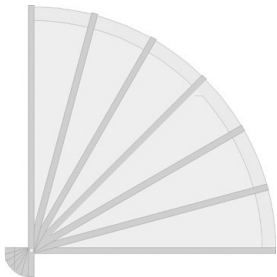
인생의 본질

칭하이 무상사 / 2000. 4. 30.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 (원문 영어)

사실상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은 모두 자신을 위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사랑이며 신, 부처, 알라의 본질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 외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진아는 사랑이며, 사랑은 가장 높고 고귀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과 부처에 근접한 듯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는 각기 다른 존재가 됩니다.

글: 관음사자

예기치 못한 영적 수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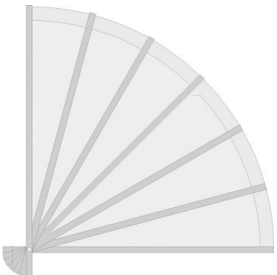


미국 9.11 재난이 발생한 후, 포모사의 각 센터에서는 이번 참사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과 희생자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세계평화를 위한 단체 기도명상 시간을 상시적으로 열었다. 이 기간 동안 관음사자들은 각 센터를 방문하며 스승님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 시기에 타이퐁 동수들은 열성적으로 기도명상에 참여했다. 낮에 바쁜 대부분의 동수들은 철야 명상을 했는데, 한 사형은 이를 밤에 명상하자 매우 편안해졌으며 몸도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동안 잠을 못 잤는데도 활기가 넘치고 정신이 맑아 보였다. 또 이 기회를 통해 잘못된 방식으로 명상하고 있던 많은 동수들이 관음사자의 지도로 빛을 보게 되었으며, 모든 동수들의 얼굴에는 밝은 빛이 발산되어 훨씬 젊어 보였다.

우리의 예전 경험으로 보면 스승님의 지시대로 성실히 수행하는 동수들은 분명히 영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으며, 우리 관음사자들 역시 그와 똑같이 영성이 고양되곤 했다.

방법이 올바르면 빛은 자연스레 온다



관음사자가 포모사와 해외에서 동수들과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관광에 대해 언급할 때, 가끔씩 명상할 때 빛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동수들이 있다.

이번 9월 관음사자가 세계평화를 위한 타이퐁 단체명상에 함께 참석했을 때에도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 이에 관음사자가 올바른 방법을 알려준 뒤 함께 명상하자, 빛을 보지 못했던 동수들도 마침내 빛을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명상 중 일부 동수들은 육안으로 지혜안을 보려고 하거나 눈동자를 일부러 위로 올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명상이 안정되지 못하거나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으며 빛을 볼 수도 없다. 우리 눈동자는 삼매에 들면 자연스레 위로 올라가는데, 일부러 그렇게 해서는 빛을 볼 수 없다. 스승님은 이전에 말씀하시길 육안 대신 지혜안에 주의력을 집중하고 잠잘 때처럼 마음을 이완시키되 내면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지혜안으로 앞을 볼 때는 일상 생활 중에 육안으로 사물을 보듯 자연스럽고 이완되어야 한다. 또한 마음 속에 일체의 기대나 욕구 없이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체험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방법이 옳기만 하면 빛은 자연스레 오기 마련이다.

명상과 나

명상이 없으면 내 마음은 공허하고
 명상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 없지
 명상이 없으면 쉽게 흥분하고
 명상이 없으면 초조하고 화가 난다
 명상이 없으면 내 가슴엔 사랑도 없고
 명상이 없으면 사랑을 나눠 줄 수도 없지
 명상이 없으면 내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천상의 집을 찾아

내가 고향을 찾고 있음을 신은 어찌 아셨을까?
 내가 찾아왔던 것이 바로 신이란 걸 나조차 몰랐건만

끊임없는 유희 속에서도 찾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건 바로 사랑과 평화로 충만한 나의 심터 때문
 내 밖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이지

이제 스승님의 눈을 바라보는 축복을 얻으며
 신의 전능하신 힘이 이처럼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네
 달리 표현할 길 없는 이 마음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네

신성한 일의 의미

로즈마리 사지
호주 멜버른
(원문 영어)

만일 여러분에게 스승님의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건 우리를 돕기 위한 신의 축복이므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 호의를 베푸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연락인으로서 내 결점 중 하나가 단체명상에는 착실하게 참석하면서도 스승님의 일을 도울 기회가 생길 때 일하지 않는 사형, 사저들에게 조금 화가 나는 것임을 나도 인정한다. 산더미처럼 많은 센터 일을 하는 사람은 늘 같은 사람들이다. 사실 우리는 같이 일하면서 서로에게서 배울 때 진정으로 자신의 장점과 결점을 잘 알게 되며, 그때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진실을 직시하게 되어 아무 것도 숨길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

나는 연락인으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처음에는 나 자신이 연락인 일을 제대로 해낼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다면 스승님께서 내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생각해 보면 훌륭한 결정보다는 실수와 잘못들을 더 많이 저질렀던 것 같은데, 나는 옳게 일을 처리했을 때보다는 그런 실수들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 나는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에도 대면할 수 있는 큰 용기를 얻었고 실수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수 또한 나 자신을 고치고 완성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것 같은 걱정으로 책임을 맡길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수를 하는 건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세속의 일상적인 일을 할 때와 비교하면 스승님의 일을 할 때는 무언가 나를 지지하는 강력한 힘이 느껴진다. 반면 때로는 부정적인 힘이 몹시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특히 센터 운영과 관련된 일에서는 그 압박감이 엄청나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할 때는 어차피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일에서 도망친다면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극복할 때까지 그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신의 시험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곤 한다. 신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이 부정적인 힘이 만들어 낸 환상을 꿰뚫어 보는지 알고 싶어하시는 것이다. 이런 시험을 치를 때마다 나의 인내심은 커지고 강해졌다. 동시에 스승님의 가피력으로 고양되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 그 내적인 충족감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진보하기를 원한다면 명상 외에도 남이 부탁하기 전에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 그러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이 장미(Rose-로즈)가 진보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나는 나 자신에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완벽한 장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는가?

이제 더 이상 무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정말 완전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에는 논리가 필요 없다

데이비드 사형
서아프리카 토고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구걸하는 작은 소녀가 있었다. 얼른 봐서는 옷차림새가 단정했기 때문에 나는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도 왜 구걸을 하는지 의아했다. 얼마 후 그 소녀는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는데 어린 동생은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이 때 그 소녀는 자신의 가정형편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자매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한쪽 다리를 다쳐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이 아이는 여기저기 다니며 소소한 물건들을 팔거나 일을 해야 했다. 수입이 없는 날이면 식구가 끼니도 걸려야 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 말할 수 없는 느낌이 밀물처럼 밀려와 전보다 더 많은 돈을 주었다. 매우 기뻐하는 어린 두 자매를 보내며 나는 그 아이가 또 찾아와도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리라 생각했다.

다음 날 내가 한 동수에게 이 얘기를 하자 그 사저는 아이가 자기 집에도 왔었다고 말했다. 그 사저는 아이에게 돈을 주기 전에 먼저 사저 집 주변에 깔린 낙엽을 치우라고 했지만 아이는 그냥 가버렸다고 했다. 나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항상 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 사저의 생각을 이해했지만 불현듯 스승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면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동수의 말로 인해 나는 이런 일이 너무 빈번히 일어나면 사람들이 질려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이번에 또 속았다고 생각하고는 다음에 그 소녀가 찾아오면 동수들에게 그 집을 방문해 사실을 알아보자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틀 후 관음사자가 우리 마을인 로메를 방문했다. 그가 가나 동수들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해 얘기하는 순간 나는 사랑은 직관적인 것이지 논리적인 분석이나 판단이 아니며, 또한 어떤 것이 가장 이로운 방법인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에 나는 내 잣대로 결정하고 물질적인 관념으로 내 행동을 판단하곤 했다. 나는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이 좋은지 나쁜지 갈팡질팡했고, 이런 생각들로 선과 악의 사이에서 분투를 했었다. 다행히도 지금은 살아 있는 깨달은 스승을 만나 스승님의 무소부재하신 가르침으로 해묵은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며칠 후 그 어린 소녀가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남동생과 함께였다. 나중에 우리 동수들과 그 아이의 집을 방문해 보니 아이가 말한 그대로였다. 우리는 동수들에게 약품과 생활비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 소녀의 아버지는 우리의 사랑과 후원에 매우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고마워했다. 나 역시 행복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내 사고가 정화되었으며 또한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합니다. 이는 인류의 본분이며,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천국은 생의 기점일 뿐이다



청하이 무상사

1999. 11. 27.

남아공 케이프타운

(원문 영어)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거나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준비해야 하는데, ‘비 오는 날’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일하고 쓰고 남은 돈은 급한 때를 대비해 적금도 들고, 퇴직금을 비축하거나 장례식에 대비한 준비까지 하지요. 하지만 정작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한 준비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그리 오래 살 수 없으며 여기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요구와 생존 경쟁은 늘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잊게 만듭니다.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라

어쨌든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물질세계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대해 준비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날을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 나처럼 젊은데도 벌써부터 이 두려운 날을 걱정합니다. 우리가 그 날에 대비해 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각종 질병이나 집을 사고 저당 잡힐 때를 대비해 보험에 들거나 준비를 하지만, 정작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영혼을 위해 육체를 버려라. 죽는 것을 배우면 살게 되리라”고 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말을 읽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매일 죽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도 없지요.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영원성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사는 법을 알려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죽는 법을 알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법을 배워 죽음을 당당히 맞이해야만 더 이상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도 지금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모든 조건이 더 좋아지지요.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고 빛보다 빠르게 어디든 이동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바로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보다도 자유롭고, 또한 신과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 오직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일상생

활에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바라는 것은 대부분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어떤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이 물질계의 행성에 되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거나 자신의 다음 생의 운명을 지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잊지 못하고 연연해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물이나 욕망에 이끌려 다시 오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매일 우리의 생각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훈련시켜 그것이 제2의 천성, 우리 자신이 되게끔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이끄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식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신의 본질이며 우리 내면에는 신의 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대단히 강력한 것입니다.

신은 영원히 자비롭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인이며 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조차 없는 구제불능의 쓰레기여서 지옥에 갈 것이라고 세뇌되었다면, 또한 죽는 순간에도 평소애 들어왔던 지옥의 끔찍한 모습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른바 지옥이란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스스로 지옥을 창조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지옥을 창조하게 되지요. 오랜 옛날부터 두려움은 우리의 유전자와 두뇌, 삶의 방식에 주입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집단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그들의 목적에 복종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목적들이 늘 고귀하지만은 않았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고대부터 전해온 스승들의 진정한 가르침, 즉 신(부처 또는 알라)은 언제나 자비롭다는 것을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고한 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사랑과 용서를 받으며, 이생에서나 다음 생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나는 그런 신의 권능을 보아왔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리고 이 물질

세계에서도 오직 사랑과 자비만을 보았을 뿐 어디에도 저주나 지옥, 신의 보복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들조차 우리를 거둬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어머니라면 언제 어디서나 그보다 더 사랑하고 용서할 것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잘못에 따라 벌을 받는다고 오랫동안 세뇌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두뇌, 물질적인 육신, 물리적인 환경이 실수를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이 항상 그것을 보상해 줄 테니까요. 그러므로 신은 결코 억지로 우리가 믿어온 그런 식으로 우리를 비난하거나 벌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 점을 깨달았으며,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더불어 이 이상의 것을 알고자 하는지와는 별개로 신은 영원히 자비롭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서나 그 후에나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떠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천국의 아름다운 존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시기를 비롯해 이 점을 알 수 없었던 까닭은 그들 스스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준비했을 수도 있지요. 이를테면 살아가는 동안 잘못을 저질렀거나 계율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생전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저주나 벌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훈련해 신의 본성으로 돌아가자

여러분이 믿는 것은 모두 물질로 화현됩니다. 여러분이 신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우리들 중 일부가 어떤 물질적인 방해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언제나 신과 하나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는 오직 신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의 본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 한시라도 우리가 신의 품을 벗어나 갈 곳은 달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과

분리된 것은 ‘우리는 단지 육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리의 뿌리깊은 생각과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신과는 별개라고 생각했던 방향을 완전히 바꿔 새로운 생각이 자동적으로 실행될 때까지 훈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순수한 수행과 정진을 통해 매일 신과 접촉함으로써 우리가 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는 우리 주위에 오직 신, 혹은 더 높은 사랑의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할 천상의 존재들만이 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런 현상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나 부처가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자신들의 손안에 그 무엇도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물질적인 육체를 떠난 후에는 그 힘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사실 이것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적인 육체의 장애가 없어져 다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 신과 하나였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일부는 이런 비밀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이 물질적인 육체에 갇혀 있는 동안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게다가 죽음의 순간에는 더 많은 것을 잊게 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죽었다가 소생한 사람들이 지옥에 갔는데 도움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며 불평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나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의 비밀과 창조의 힘, 그리고 우주의 전능한 힘과 하나되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은 죽기 전이나 후에도 모든 것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은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창조의 힘을 기억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천국을 즐기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여기 이 행성에 있는 동안 신의 지혜와의 접촉을 즐기

는 것이지요. 그런 후 이 힘을 잘 활용해 우리의 삶과 우리와 같은 이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쉽기는 하지만 다소 훈련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신의 왕국을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돈과 차, 집, 미인을 얻기 위해 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은 대로 하기 때문이지요.

두뇌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정되고 단순하고 변화가 없는 매일 똑같은 방식을 좋아합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 그런 것을 좋아하지요. 변화가 생기면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기계도 그와 같은데, 그런 면에서 두뇌도 일종의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뇌를 장악하고 있는 힘인 마음 역시 천국을 얻는데는 크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컴퓨터를 움직이는 전기와 같은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진리의 원천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감로법어

청하이 무상사

1999. 11. 29. 남아공 케이프타운

(원문 영어)

일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신과 대중을 위해 일하면 공덕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만큼 한량없이 커지며, 또한 그 공덕은 여러분의 수행 진보의 보물창고에 더해질 것입니다.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죽음의 순간에는 이미 너무 늦을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와 마음은 부정적인 사고 방식에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거나 그 방식을 고칠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라

그러나 우리는 이 행성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지 않거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배우지 않는다면, 죽음의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카르마에 뒤떨릴 것입니다. 카르마는 산스크리트어로 인과의 법칙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생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생각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죽음의 순간에는 그 흔적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우고자 한다면, 깊은 명상과 정화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 묵상, 깊은 기도라는 것인데, 그건 반드시 올바른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정확해야만 하지요. 다른 모든 일에 정확한 방법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방법을 안다면, 일은 간단하지요.

모두들 세상을 떠날 때는 천국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보통 그래야 마땅합니다. 이 세상의 평범한 시민이라면 천국에 갈 겁니다. 하지만 케이프타운에 여러 종류의 집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의 즐거움도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아주 싼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많은 설비와 가구, 수영장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아주 비쌉니다. 이 물질세계를 떠난 후에는 우리의 의식수준이 천국에서의 즐거움의 척도가 됩니다. 자신을 충분히 훈련시킨다면 죽은 후에 즉시 천국으로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얼마 동안 이 세상 주위를 배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며 더 이상 사용할 신체가 없고, 우리의 말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리지도 않으며 때로는 우리 면전에서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가 매일 다른 사람을 침대로 데려와도 막을 길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화를 내도 누구 하나 이런 점을 알지도, 관심 갖지도 않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세계에서 살아 있는 동안 생각했던 결과에 지배를 받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죽은 뒤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살아 있는 동안 준비하지 않거나 명상을 통해 긍정적인 힘을 키우며 신의 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생전의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 고통스런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자기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걸어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의식이 있다면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대개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올 만큼 강하지도 못하고 나약하지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분위기가 사라질 때까지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 또 다른 압력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창조해 낸 부정적인 영역이나 압력뿐 아니



감로법어

칭하이 무상사

1999. 5. 26. 슬로베니아 류블라나

(원문 영어)

깨달음은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신의 사랑은 이 지구의 온갖 분쟁을 해결할 유일한 처방입니다.



라 이 행성 사람들과 우리의 친척, 친구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업력(業力)이지요.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다스리는 방법, 혹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이리저리 끌려가고 고통과 환상의 경계에 빨려가게 되는데, 그 순간에도 완전히 진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임종 때의 바른 생각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채식이나 자비심을 수행한다거나 우리와 함께 수행하고 싶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항상 ‘신은 자비롭다’는 점을 상기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임종시 기억해야 하는 유일한 생각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옆에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며, 천사가 천상의 음악과 함께 여러분을 맞이하러 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신의 아들딸로서 결코 그보다 낮은 존재가 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고귀한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긴다면 저승사자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승사자는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는 우리가 생전에 그를 믿음으로써 만들어 낸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라.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무언가를 구할 때 바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단지 우리가 이 물질적인 육체에 방해받기 때문에 즉각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조금 지나서 나타나 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원했던 사실을 잊고는 “아, 이걸 운이 좋은 것 뿐이야!”,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이 내게 생긴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업이나 사람들의 공

정적 부정적 생각과 공업(共業)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죽음의 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 나쁜 것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이 육신의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신체의 보호막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며 어떤 상황이든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며 우리를 몹시 그리워하고 애통해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처럼 바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을 위한 가장 좋은 일은 그들이 천국에 가도록, 또는 즐겁고 해탈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고 슬퍼하면서 너무 그리워해선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더 높은 차원으로 떠나지 못하고 몹시 고통스러워하게 되니까요. 죽음은 축하할 일이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결국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를 끼칠 수 없으



감로법어

청하이 무상사
1999. 11. 28 - 30. 남아공 케이프타운
(원문 영어)

우리의 수행진보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만물동일체가 됩니다. 우리는 단숨에 어디든 갈 수 있으며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그 즉시 실현될 것입니다.

자신이 천국에서 왔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운명과 미래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고유의 천국을 창조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나 업장에 휩쓸려 노예나 개처럼 여기저기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바다인 신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겐 위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처럼 걷고 신처럼 행동하고 신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을 잊었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으로서 습관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습관도 깨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바빠 움직이는 동안 생각을 통제하고 영광스런 진아로 되돌아가는 훈련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신과 하나가 될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력을 집중해 생각의 습관을 바로잡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 다시 원래의 진정한 모습인 천국의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문할 때만이 아니라 매일 명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문한 후 여러분은 이미 해탈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보다 순탄하게 살고, 또 사는 동안 천국을 즐기며 스스로를 천국의 왕자, 공주로 재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매일 자신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세생생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신이 진실로 얼마나 선량한지 다시 일깨워야만 합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며 매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배울 게 없습

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왕이며 천국의 일부, 전 우주적인 힘의 일부로서 무소불능합니다. 단지 그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이 이를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을 벌어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보다도 훨씬 쉽고 운전이나 잠을 자는 것보다도 쉽습니다. 또 너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기만 해도 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 온 마음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가르침을 전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2시간 반, 또는 할 수 있는 만큼 명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잠을 약간 줄이거나 전화로 수다 떠는 시간을 줄이고, TV도 방영되는 대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주요 뉴스만 보는 겁니다. 불필요한 많은 일들과 단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했던 일들을 줄이기만 하면 여유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죽이지 않고 잘 살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다른 사람들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습관을 깨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에 나는 운전을 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 면허를 땀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자 나는 내가 살아 있는 한 인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지구상의 한 개인으로 느껴져 너무나 자랑스러웠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길 바랬습니다. 이전 다 스스로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실패한데 이어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성공했지요. 운전을 하는 것조차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과 돈, 집중력이 필요하지요. 그래도 해냈습니다. 우리는 이 일뿐 아니라 영어나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다른 많은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걷지도 못하고 힘없이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 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기려고 하다가 다음에는 서려고 시도하고, 그 다음에는 주위를 아장아장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걷게 되고 뛰게 되며 이제는 날기까지 합니다!

깨달은 스승은 길을 비춘다

모든 것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아기에게는 어른처럼 달리거나 자전거나 차를 운전하는 일, 뛰어 오르거나 춤추는 일이 분명히 불가능하게 느껴지겠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보았고 스스로 훈련했기 때문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는 것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얼른 봐서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이 우리 힘만으로 시도한다면 훨씬 어렵겠지만, 그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경험과 가르침을 보여준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신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스승을 수없이 보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해서 그 가 우리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분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람을 영어 선생님이나 수학 교수로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천국에는 높고 낮음의 구분이 없습니다. 먼저 그 길을 가서 나중 사람에게 길을 인도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하면, 그 편이 훨씬 수월하고 힘도 들지 않으며 안전하고 빠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천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우리가 이미 잊어버려서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있으며 때로는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동안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고 보호해 주면서 가야할 길과 피할 길을 일러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이 훨씬 더 즐거울 것입니다. 동행이 생기면 가는 길이 더 쉽고 빠르겠지요.

종합해 말하자면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고 싶다고 느낀다면, 바로 여기 내가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나 조건도 필요 없으며, 오계(五戒) 또한 계율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또는

자질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십계명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그는 십계명이 신에게서 왔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등급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를 따라야 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한번 가르쳐 준 후에는 언제나 그것을 기억해서 여러분 혼자서 수행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방법을 가르쳐 준 후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할지 알게 됩니다. 매일 여러분 자신의 스승이 되는 것이지요. 한 스승, 혹은 그 어떤 스승을 따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여러분 자신의 스승이 되어 자신이 선택한 바를 행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좋은 일을 행하도록 스스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지 역: 캐나다 토론토
방송국: 로저스 텔레비전-채널 10
내 용: 칭하이 무상사의 비디오 강연
시 간: 2001년 11월 4일 EST 오전 11시 30분
2001년 12월 2일 EST 정오 12:00
2002년 1월 13일 EST 오후 12:30
2002년 3월 3일 EST 정오 12:00
2002년 6월 2일 EST 오전 11:00

지 역: 포모사 타이난
방송국: 케이블 TV- 채널 21
내 용: 예술과 영성
언 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해설+자막)
시 간: 2001년 10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일요일
매일 네 차례 방송
오전 5:00 ~6:00, 오전 10:30 ~11:30,
오후 3:30 ~4:30, 밤 10:00 ~11:00

칭하이 무상사의 다른 TV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방송시간표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spiritual-discovery.org/events/tv.htm>

깨달음은 영원한 평화를



가져온다

청하이 무상사 / 1999. 5. 28. 체코 프라하

Q: 왜 전쟁이나 재난, 재해가 생기는 것입니까?

M: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들 스스로 초래한 일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신의 일부로서 창조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사랑이 가득하고 자비롭고 바른 것을 생각하면 보다 나은 분위기를 만들며 환경 역시 더욱 나아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증명할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여러분은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고 기분도 마냥 좋아지지요. 우리 주변 사람들 역시 이 행복감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을 할 때는 누구라도 다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랑의 힘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키스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증오심이 생겨나고, 질투를 할 때는 저급한 마음과 품성을 갖게 되어 너무도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한 분위기는 다시 우리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혹은 증오로 가득 찬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 그런 파장들이 같이 모이게 되고 막강한 힘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런 분위기들은 나아가 날씨가 사람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재난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로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날카롭게 반응하면 그 역시 흥분해서 화를 낸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증오와 분노의 버겁고 압력이 강한 분위기로 인해 서로 싸우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커지면 현실이 되어서 약천후나 전쟁, 전염병과 같은 재난으로 실체화됩니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는 이런 성질들이 가장 많은 곳에 몰려듭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가장 부정적인 에너지가 짙은 곳에 몰려들면 나쁜 일이 바로 그곳에서 발생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더 많은 사랑을 주면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잘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사전에 차단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계의 평화에도 이바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난은 바로 무지로 인한 것입니다. 신을 알지 못하는 무지, 그것만이 이 세상과 다른 세계에서의 유일한 죄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신을 안다면, 너무나 행복하고 지복이 가득해 오히려 지루한 일은 할 수도 없습니다. 또는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아주 적어지지요. 우리는 깨달아서 지혜로워짐에 따라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얻어야 할 최선의 길은 깨달음입니다. 그건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서 금이나 다이아몬드 등 이 세상에서 최상의 것이라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돈이나 집을 준다 해도 이런 것들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전쟁과 화재, 사고로 파괴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전해 준다면, 여러분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얻을 수 있으며 영원토록 자신을 보호하고 보살필 수 있습니다. 집이나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깨달음이나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보다 훌륭한 방법을 잘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음이야말로 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인 것입니다.

전쟁을 끝내는 방법

칭하이 무상사 / 1999. 6. 5.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원문 영어)

Q: 스승님께서 전쟁이 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M: 우리 행성의 영적 수준이 더 높아진다면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전쟁은 인간과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신과의 거리감 때문에 생긴 증오와 오해, 좌절의 분위기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고향'에 대한 갈망으로 표출되는 절규로서 아버지가 있는 곳을 모르는 어린아이의 가장 절박하고도 격렬한 울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부모를 만나게 해 주면 아이는 울며 발을 구르던 것을 멈출 것입니다. 아이는 선악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굶주리고 목마르며 춥고 겁에 질린 외로운 아이는 어머니의 품을 원할 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신을 알지 못하는 한 전쟁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초대받지 않아도 나는 갑니다. 신의 뜻에 따라 아이가 아버지를 알고 이 모든 절박하고 외로운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보다 문명이 발달된 다른 행성의 존재들은 보다 지혜롭고 영적으로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들 내면에 신이 항상 존재하며, 신은 그들 삶의 목적이자 방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리 많지 않은 사람만이 직접 신을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분노와 좌절, 공포, 근심을 신에게 직접 토로하지 못합니다.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우리에게겐 모두 나름대로의 고민과 약점, 공포, 욕구, 절망감이 있는데 의지 할 곳이 없으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들 역시 어떤 면에서는 전쟁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전쟁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범주와 정도가 다를 뿐 모두 피해자지요. 사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가장 심각한 피해자입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힘의 끔찍한 환상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 다른 나라로 망명할 수도 없어 그렇게 힘겹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이 행성이나 다른 그 어떤 곳에서라도 전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깨닫는 것, 신을 아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안아 주면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의 힘으로 세상을 개선시키자

칭하이 무상사 / 1999. 11. 28. 남아공 케이프타운 (원문 영어)

우리의 생각은 온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지구의 인구수에 비하면 우리 단체는 미미하지만 우리 생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합쳐 한 곳에 정신을 모으면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집중된 생각의 힘은 다른 부정적인 힘을 물리쳐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선 행사를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지요.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 바꿀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 1999. 6. 5.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원문 영어)

우주적인 형제애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지성의 네트워크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는 모두 그 일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어떤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흐름에 결함과 지연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의 사랑을 나누자

칭하이 무상사 / 1999. 8. 4. 미국 뉴욕 마리웃 호텔 (원문 영어)

신의 사랑은 영원히 인간을 돕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눠야만 이 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수록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됩니다. 자신 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많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갖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돈을 쓰는 즐거움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멋진 차와 아름다운 옷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고 즐거워지는 돈의 위력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써야 합니다. 사랑을 줄수록 우리는 그 위대함을 체득하고 또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의지하라

청하이 무상사 / 1991. 9. 22.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아주 오랜 옛날, 어떤 농장 주변에 새 두 마리와 그 새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미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새끼들에게 먹일 먹이를 구해왔습니다. 어느 날 먹이를 갖고 둥지로 돌아오니 새끼 새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린 끝장이에요!” “왜? 무엇때문에?” 어미들은 놀라서 물었지요.

“농장 주인이 내일 친척과 친구들에게 추수를 도와달라고 한대요. 그럼 먹을 게 없어질텐데 ……” 새끼 새들이 말하자 어미 새들은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말아라. 별 탈 없을 거야. 그 친척들과 친구들은 분명히 오지 않을 테니까.” 새끼 새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어미 새들의 말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미 새들은 나이도 많고 경험도 풍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확신한 새끼 새들은 마음놓고 먹이를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결국 농장 주인의 친척이나 친구들은 한 사람도 추수를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어미 새들이 먹이를 갖고 돌아오자 새끼들이 또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일났어요! 농부가 내일은 자식들에게 가을걷이를 도와달라고 한대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질 텐데, 어찌죠?” 어미 새들은 웃으며 다시 안심시켰습니다. “그럴 리 없단다! 안심하렴. 농부의 아이들은 분명히 도우러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 겁먹지 마라.” 새끼 새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지난번 예상이 맞았으니 이번에도 틀림없을 것이었으니까요. 가

족들은 즐겁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예상대로 농부의 자식들은 아무도 추수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미 새들이 새끼 새들에



게 먹일 저녁거리를 가지고 둥지로 돌아오자 새끼들이 또 말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큰일났어요! 농부와 그 아내가 내일은 자기들이 직접 수확을 하기로 했대요.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거래요.” 이번에는 어미들도 정말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아이쿠, 이번엔 정말 끝장이구나!” (스승님과 대중 웃음) 새끼들이 물었습니다. “이상해요! 왜 그렇지요? 저번에 친척과 친구, 자식들이 도우러 올 거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왜 이번에 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네 손으로 수확할 거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걱정하나요?” 어미들이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모를 거야. 그들이 정말 자신들만 믿는다면, 그건 분명히 하는 거란다. 다른 이들에게 의지하는 건 믿음직하지 못 하지. 이제 그들이 자기 손으로 한다고 결정했으니 분명히 할거야. 그러면 우리도 먹이가 떨어질 테니, 다른 농장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우리 수행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관음법문은 자신에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몸 역시 우리 것이 아니므로 몸으로 수행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면의 진아로 수행하고 매일 수행하여 진아를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최상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음법문을 수행할 때 그토록 이로움이 큰 것입니다.

들통난 거짓말

청하이 무상사 / 1999. 10. 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중국어)

한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누구를 찾으십니까?” “씨에 선생님이신가요? 오늘 토니가 학교에 못 갈 것 같은데요.” “실례하지만 전화 거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선생님이 다시 묻자 그 상대방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인데요.”



너무 부지런해도 탈!

청하이 무상사 / 1999. 10.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화물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속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온 수정도 있었습니다. 부두의 일꾼들이 짐을 내리자 감독관은 수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새로 들어온 짐꾼의 어깨를 두들기며 말했어요. “자네는 일을 잘 하는군. 내가 지시한 대로 ‘취급주의! 이 방향으로 드시오’ 표시를 상자 위쪽 끝에다 잘 찍었더구만. 한 상자도 빠뜨리지 않고 말이야. 좋아, 아주 잘했어!”

“그럼요. 첫 출근한 날 말씀 드린 대로 제가 좀 부지런하거든요. 벌써 상자 밑에도 똑같이 찍어 놓았는 걸요. 양쪽에 다 표시했으니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영수증의 목적

청하이 무상사 / 1999. 10.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교통 범칙금 납부 사무실에서 경찰이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범칙금 영수증을 건네 주었습니다. 속도위반으로 걸린 운전자는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체 이 영수증을 왜 주는 거죠?” “보관하게. 이런 영수증이 네 장 모이면, 자네에게 자전거가 생길 거니까!” (모두 웃음) 그때 쯤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말이지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이 농담을 원문으로 감상하실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27/jk1.htm> (미국)
<http://Spiritual-Discovery.org/eng/news/127/jk1.htm> (미국)

머리카락 한 올의 진실

MRT 발명가와의 단독 인터뷰

뉴스잡지 114호에는 스승님의 머리카락을 측정한 결과 스승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인 증한 MRT(Magnetic Resonance Tester - 자기공명 측정기)에 관한 보도가 실렸었다.

이 보도가 나간 후 많은 동수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그 기계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요청했고, 우리는 더 자세한 자료를 얻기 위해 MRT의 발명가인 MRT 연구소 백 소장과 인터뷰를 했다. 이하는 인터뷰에서 발췌된 내용이다.

한국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질문: MRT에 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백: 지난 번에 만났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 의 몸은 자기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氣)’, 또는 ‘오오라’ 라고 알려져 있지요. MRT는 사람의 자기 장에서 정보들을 읽는데, 그 센서기는 생명조직에 관 한 아주 미세한 진동까지 정확히 정보를 감지합니다. 머리카락이나 혈액, 소변 등 인체의 진동 정보를 가지 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측정,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 므로 MRT는 ‘기의 정보를 읽는 기계’ 라고 할 수 있 지요.

질문: 이 기계는 어떻게 발명되었나요?

백: 저는 기술자도 전문의도 아닙니다. 그저 수행 자일 뿐이지요. 수년간 다양한 수행법으로 수행해 왔 는데, 10년 정도 수행하다가 역경(易經)에서 이 기계에 대한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득 역경이 우주를 0 과 1의 2진법적 체계인 디지털로 설명했다는 것을 깨 달았지요. 단지 역경에서는 음과 양(-, +)을 사용했을 뿐 입니다.

또한 극성(極性) 에너지 연구는 이동과 진동 연구 에 비하면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곤 생 명 에너지의 정보를 분석할 때 진동성과 극성을 결합 해 그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공학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몇몇 엔 지니어들에게 제 아이디어를 얘기한 후 제가 구상한 기능을 수행할 프로그램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 고 5, 6년 전에 이 기계가 성공적으로 발명된 겁니다. 시장에 나온 것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질문: MRT의 기능 원리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백: 그 기능체계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우선 두 가 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로 바디코 드(혹은 유전적 성향)와 역경의 기본 원리지요.

MRT는 인체와 체질의 진동 속에 담긴 음양 극성 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특유의 극성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음과 양의 배열 형식을 바 디코드라고 합니다. 바디코드는 타고난 것으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 에너지의 극성 유형을 읽 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그의 유전적인 정보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극성 유형을 읽는다’는 개념은 역경의 기본 원리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주: 극성 유형은 점괘의 배열 모습 과 다소 비슷하다.) 지금까지 이런 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로는 최대 6단계, 64개의 유형으로 나뉘질 수 있습 니다. 분석의 첫번째 단계는 인체를 크게 음과 양, 두 가 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음과 양의 성질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세 번째, 네 번

째, 다섯 번째 단계를 거치며 각각 8, 16, 32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64개 유형이 되는 거지요. 역경에서는 이 유형들을 64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64개 바디코드에 속하며, 대개 더 포괄적인 분석이 이루어질수록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 왜 6단계와 64개 유형으로만 나뉘집니까? 더 상세한 분류는 없을까요?

백: MRT의 분석체계는 역경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역경은 6단계와 64개의 조합을 만들어 냅니다. 그 단계의 수를 늘려 보려고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6단계의 구조만 지원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6단계의 분류가 완성적이라고 결론지었지만, 가능하다면 64개의 바디코드를 그 제공인 64×64로 분류할 수 있는 더 정밀한 기계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해진다면 컴퓨터가 정보를 자동 분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정확한 결과들을 얻어내려면 상당한 통찰력이 있는 분석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질문: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백: MRT에는 3,000개의 코드가 있습니다. 지난 번 인터뷰했을 때는 2,300여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동안 계속된 연구로 자료가 증가했습니다.

MRT의 기능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대상자가 64개의 바디코드 중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 조사합니다. 각 바디코드는 그에 따른 유전적, 신체적, 기질적 특징들과 병이 나기 쉬운 인체의 약한 기관에 관한 폭넓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반응하는 바디코드를 파악하고 나면, 정상적인 코드와 비정상적인 코드를 분석해 질병의 자료를 뽑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료를 MRT에 있는 코드와 비교해 건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사합니다. 보통 두 가지 에너지가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면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실험샘플(머리카

락이나 소변 등)을 정상적인 인체 기관의 진동코드에 하나씩 비교 실험했을 때 공명이 일어난다면 그 기관이 정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공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공명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이제는 그 기관에 각종 특정 질병코드를 대치시켜 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체의 어떤 기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분별하기 어려운 질병도 감지될 수 있고, 다른 검사로는 발견되지 않는 미세한 비정상적인 변화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에 보이지 않게 축적된 독소를 감지한다거나 신체에 쌓인 중금속 정도를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MRT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다 광범위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 자리에선 그 의학적인 기능에 대해서만 얘기하기로 하지요.

MRT는 타고난 체질 유형과 성격적 특징, 약점도 감별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특히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지 밝혀 주기 때문에 어떤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이미 의심이 가는 증상이 생겼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그 질병의 원인과 상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요.

질문: 질병의 증상이 진단되었다면 어떻게 치료합니까?

백: 설령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모른다 해도 일단 세포에 비정상적인 점이 나타났거나 특정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조치를 취합니다. 대개 한의학과 대체의학에 의해 처방을 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연요법이나 침술을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특수한 목욕요법이나 운동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대개 식이요법으로는 채식을 권장합니다.

질문: 스승님께서 이 기계가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무나 작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백: 칭하이 스승님이 MRT의 이런 중요한 특성을 너무나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서 놀랐습니다. 훈련을 잘 받

는다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고 정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강한 집중력이 필수적입니다. 미세하고 정교한 진동을 빠뜨리지 않고 정해진 코드에 공명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아주 강한 집중력이 요구되지요.

분석을 하려면 먼저 MRT 센서기를 분석 프로그램과 분석가의 상태에 정확히 맞춰야만 합니다. 인체의 진동수는 그 대상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센서기를 인체 진동수에 잘 맞춰야만 합니다. 인체와 완벽하게 공명하는 최적점에 맞춰야 하지요.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로운데, 그래서 분석가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계는 하루에 한 번만 맞추면 되지만 살아 있는 유기체의 진동수는 수시로 변합니다. 식사 전후, 명상 전후가 달라지지요. 분석가의 미세한 변화도 판단과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MRT는 수시로 조정해야 합니다. 분석가가 흥분하거나 산만한 상태라면 센서기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명상할 때처럼 마음이 평온할 때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명은 기본적으로 빛과 소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도 놓치지 않으려면 강한 집중력이 필요하지요. 그러므로 분석가의 안정된 마음과 주의력이 최종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질문: 공명이 빛과 소리의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백: 그렇습니다. 공명은 빛과 소리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심지어 그래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리를 듣습니다. 공명하는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들을 주의깊게 들어야 하지요.

질문: 스승님의 바디코드가 즉각적 깨달음을 나타낸다고 하셨는데요.

백: 예. 스승님의 바디코드를 실험했을 때 매우 놀라웠습니다. 모든 면에서 유난히 순수하고 깨끗했거든요.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도 없이 아주 깨끗하고 맑았습니다. 더 조사해보자 스승님의 무극(無極) 공명을 발견했지요. 놀랍도록 완벽했습니다. 최고치의 무극 공명에 도달해 있었는데, 그건 스승님의 모든 차크라가 열려 있으며 줄곧 깨달음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뜻합

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외적인 바디코드라는 건 아닙니다. 64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이지요. 각각의 유형은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명합니다. 예를 들어 암이 발병하기 쉬운 유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유형은 뇌졸중을 겪기 쉽습니다. 또 차크라가 쉽게 열리는 유형도 있습니다. 스승님의 검사 결과를 상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스승님의 바디코드는 그런 유형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디코드와 무극 공명지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거지요.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디코드는 유전적 특성이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차크라의 정도는 수행을 통해 개발되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계가 깨달음의 정도를 측정하면서 편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물질 과학에서 다룰 수 없었던 영적 분야도 증명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과학의 전체영역이 확장될 수 있지요.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기계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백: MRT는 기존의 기계들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진보한 장비입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서는 다른 고등한 행성에 이것과 비슷하지만 보다 진보한 기계들이 존재한다고 하시더군요. 앞에 이 기계가 가진 몇 가지 약점에 대해 언급했는데, 차차 다른 행성에 있는 것처럼 더 정교하고 진보한 기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진보한 과학이라면 영적 지식의 발전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물질과학자는 아니지만 스스로를 자연과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행자이기니까요. 제가 이 기계를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 저의 깨달음은 바를 확신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텅 빈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깨달음에서 왔고 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잊혀진 지혜를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스승님께서 아프간 난민들에게 사랑의 10만 달러를 기부하시다

전쟁의 상처로 누더기가 된 아프가니스탄은 지금도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다. 갈 곳을 잃은 미망인과 고아들은 다가오는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여서 더욱 비참한 상황이다. 이들은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데다 냉혹한 현실마저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최근 스승님께서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동수들에게 그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요청하시고, 또한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구호 담당부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셨다.

수신 : 구호 담당부

2001년 10월 17일

세계 평화를 위한 명상이나 기도 외에도 아래 단체에 재정적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1. 유니세프(UNICEF)에 5만 달러
2. 국제 적십자연맹에 5만 달러

이 지원금은 상기 단체들이 올 겨울 아프간 동포들에게 시급한 생필품을 공급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의 축복으로 평화와 사랑이 깃들기를
감사합니다.

Chíng Hái

유럽 동수들의 사랑

미국 9.11 재난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전 경고 없이 닥친 악몽이었다. 공포와 불안, 무력함에 빠진 수많은 이들을 위해 전세계 센터 동수들은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사랑의 구호활동을 펼쳤다. (자세한 내용은 126호 잡지 참조)

미국에서 대서양 건너 멀리 떨어진 곳의 유럽 동수들도 단체 기도 명상 모임을 자주 여는 등, 그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었다. 다음은 유럽 센터에서 진행된 사랑의 구호활동을 간추린 것이다.

Love



체코 프라하

프라하 동수들은 기존에 일주일에 한 차례 열던 단체명상을 세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동수들에게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와 세계의 긍정적인 에너지 고양을 위해 각자의 집에서도 보다 많은 명상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스승님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오스트리아 동수들은 세계평화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선삼 행사를 개최해 영적인 힘을 한데 모으고, 수차례의 기도명상 모임도 개최했다.

불가리아 소피아

불가리아 동수들은 한 차례 기도명상 모임을 열고, 이후에는 단체명상 횟수를 늘렸다. 단체명상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상호간에 보다 넓게 이해하길 바라는 신실하고 조용한 기도로 시작되었다. 동수들은 또 매달 마지막 주말에는 선을 개최하기로 했다.

폴란드 로즈

폴란드 센터는 스승님의 지시를 받자마자 즉시 모든 동수들에게 이를 공지했다. 단체명상은 세계평화, 그리고 모든 이들의 사랑과 지혜, 상호간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모든 인류가 두려움과 전쟁 등 모든 폭력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기도로 시작했다.

독일

스승님의 지시를 받고 뮌헨 동수들은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하루 네 차례 단체 기도명상 모임을 가졌다. 베를린 센터는 Uelzen에서 하루 반 동안 선 행사를 개최했는데 전국 각처에서 동수들이 참석했다. 함부르크 센터는 선이 행사를 통해 미국 재난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뒤셀도르프 센터는 9월 22일, 23일 선이 행사를 여는 동시에 토요일 명상 시간을 늘렸다. 동수들은 인류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확대해 나가길 기원했다.

아일랜드 더블린

더블린 센터는 스승님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전국 동수들에게 이를 전하고 단체명상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단체명상은 9.11 재난 희생자들과 지구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위해 수요일과 일요일로 조정되었다.

벨기에 브뤼셀

벨기에 동수들은 9월 16일 일요일에 별도의 단체명상을 개최했다. 그 날 따라 유난히 조용했는데 인근 주민들조차 그런 고요함에 영향을 받은 듯 했다. 오후에는 동수들끼리 스승님의 메시지에 대해 논의하고 이 일에 대한 생각들을 교환했다. 벨기에 동수들은 또한 매달 추가적으로 선을 개최하고 미국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기부금도 보내기로 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곳 동수들은 9월 29일과 30일 주말 동안 선이를 열어 뉴욕과 버지니아 알링턴, 펜실베이니아에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핀란드 헬싱키

핀란드 입문자들은 일요일 단체명상에 모여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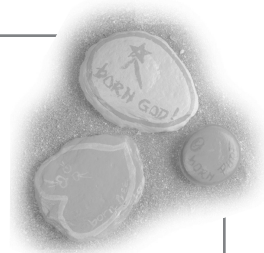
슬로베니아 류블라나

슬로베니아의 동수들은 세계 평화와 인류의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별도의 단체명상을 수차례 개최했다.

평화와 사랑의 길

칭하이 무상사 / 2000. 4. 29. 스리랑카 콜롬보 (원문 영어)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무력 등 합당하지 않은 방식을 선택해 그로써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신, 우리의 신성으로 돌아가는 위대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성인의 길은 항상 평화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아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때마다, 그리고 고통스럽거나 물질세계의 어려움에 부딪혀 좌절하고
끌려 다닐 때마다 자신을 추슬러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하십
시오. 유일한 진실은 긍정적인 힘이며, 사랑이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것이
라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훌륭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우리가 그
것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 칭하이 무상사 —

진정한 사랑 속에 고통은 사라진다

재고의 여지도 없이 최근 발생한 미국 9.11 사건은 인류 역사상 비극의 한 페이지로
남겨졌다. 세상 사람들은 이 끔찍한 재난에 대해 각기 다양한 반응을 보였지만, 전 세계
동수들은 ‘모든 사람이 다 형제자매이며, 만물은 나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재난 발생 후
구호활동에 참여하여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었다.

특히 미국 동수들은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재난 속에서도 대단한 침착성을 발휘해 최
선을 다해 사람들을 도왔다. 구호활동에 참여했던 동수들의 아래 체험과 보도를 통해 ‘신
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되었다.



사랑의 구호 활동

미국 뉴욕 구호팀 (원문 영어)

뉴욕 시 폭발 구호활동 중에서 감동적이었던 것은 많
은 비영리 단체들이 조직한 부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이다. 거기서는
모두가 손님이어서 누가 무엇이 필요하든 아무런 문제
없이 다른 부스의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었
고,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
을 줄 수 있음에 너무나 행복해했다. 스승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어려울 때 사람들은 보다 영적으로 된다.

우리 부스에서는 중국 음식과 샌드위치, 도시락,
뜨거운 커피와 차, 과일뿐 아니라 옷가지와 양말, 장

갑, 의약품도 제공했다. 뉴욕과 뉴저지의 ‘어부의 교
회’ 사람들이 하루에 두 번 정기적으로 쌀과 각종 음료
를 공수해 주었고, 우리는 재난 지역 근처의 한 사저
집 뒷마당에 세운 간이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현장으
로 가지고 와 배급했다. 평균적으로 매일 천여 개가
넘는 도시락이 소비되었다. 우리 부스는 폭발지점 방
어막을 쳐놓은 경비구역 쪽 정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조작업자들이 우리 앞을 지나게 되어 있었
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단체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었는데, 모두들 우리와 알게 된 것을 매우

행복해했다. 처음에는 직접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구호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좀 지난 뒤에는 많은 경찰관들과 경비대, 여러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가 매우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임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봉사 정신을 높이 인정받아 한결 수월해졌다.

9월 18일 오후에는 조지 파타키 뉴욕 주지사가 우리 첫번째 부스를 들르면서 우리의 활동을 칭찬하고 격려했다. 다음 날, 다시 현장을 방문한 그는 우리에게

게 친근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우리는 9월 20일 목요일에 정부측 구조작업자들이 구호작업을 인계받는다는 것을 알고 아침 식사를 제공한 후 부스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하고 있는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자 우리는 가져온 우비 두 상자를 풀어 하나씩 배포했다. 그때 우리는 이제야 우리의 임무가 끝났으며, 스승님께서 다시 한번 무한한 사랑으로 뉴욕을 축복하셨음을 느꼈다!



사랑의 임무로 연결된 두 마음

미국 미주리의 한 사저

2001년 9월 12일 오후 나는 뉴욕 구호센터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이 재난 구조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뉴욕으로 가기로 했던 것이다. 뉴욕으로 가던 중 밤 11시 30분 경 내 차가 길 한쪽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현장에서 날아온 큰 바위에 맞아 망가졌다. 급히 차를 길가에 세우자 휘발유 냄새가 확 풍겨왔다. 내 차는 몰고 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때마침 다가온 공사 인부들에게 모텔까지 태워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차를 빌리려고 렌터카 회사에 전화를 했지만 남아 있는 차가 없었다. 게다가 뉴저지 센터에 전화해 뉴욕의 상황을 묻자, 많은 도로가 차단되어 뉴욕 구호센터로 가는 게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는 몹시 가고 싶었던 마음 때문인지 절망감과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리 밖에 없었고 나는 자정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낯선 사저에게서 전화를 받았

다. LA에서 오던 중인 그녀는 마침 우리 집(미주리 센터이기도 함)을 지나던 참이었다. 그녀 역시 재난 소식을 접하고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공항이 폐쇄되어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자 뉴욕으로 운전해 가던 중이었다. 그녀는 원래 미주리 센터에 전날 밤 전화하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다음 날 새벽 5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뉴욕구호센터로 바로 가려고 생각했었다. 보통 나는 아침 명상 때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 아침에는 벨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사저와 함께 뉴욕으로 갈 수 있었다.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진정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돌보신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 둘은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었던 것이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바램과 사랑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느꼈다. 우리 두 마음은 정말 같은 사랑의 임무를 위해 연결되었던 것이다.

시기 적절한 안내

미국 켄터키의 한 사형 (원문 영어)

버지니아 알링턴의 미 구세군 본부에 기부금을 전달 하러 가던 도중, 우리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무수한 추측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해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반대 차선을 지나던 차 한 대가 멈춰 섰다. 그 운전사는 창을 열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는 우리 목

적지를 들고는 우리가 찾고 있는 건물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 주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매순간이 경이롭다는 것을 실감했으며, 이 우연한 사건은 곤경에 처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 주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스승님 외에 어느 누가 우리에게 이런 깜짝 선물을 통해 항상 제자를 돌보고 계심을 알려주시겠는가!

무사통과를 보증하는 노란 조끼

미국 산호세 구호팀 (원문 영어)

산호세 구호팀은 9월 17일부터 20일 동안 뉴욕 구조활동에 참여했다. 세계무역센터 재난현장은 TV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상황이 좋지 않았다. 현장에 있었던 우리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으며, 재난지역 주변 사람들의 느낌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그곳 분위기는 몹시 어둡고 침체되어 있었는데, 우리 부스는 그곳에서 스승님의 사랑과 격정을 구조작업자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공간이 되었다.

우리 음식 부스는 붕괴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현장에서 세 명의 관음사와 함께 30여 명의 동수들이 하루 2교대로 15시간에서 16시간씩 구조활동을 펼쳤다. 폭발지점에서 8일간 일하는 동안 동

수들은 거의 잠 잘 시간이 없었다. 우리 구호팀은 매일같이 밤새 현장의 구조작업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음식과 음료를 제공했다.

우리는 단지 몇몇 허락받은 사람들만이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노란 조끼와 입문증,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 구호팀 동수들을 위해 만든 간단한 배지만으로도 보안 검사를 통과해 현장에 들어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구조활동을 계획하던 초기에 스승님께서 모든 자원 구조작업자들에게 일을 하는 동안 노란 조끼를 입으라고 지시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스승님의 축복은 우리가 현장에서 수월하게 구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던 큰 뒷받침이었음이 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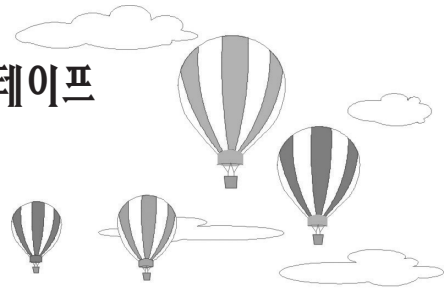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영어+ 프랑스어 자막>

620 진정한 스승의 힘 (4)

영동 국제 선육

한국 1998년 5월 6-10일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영어 + 22개 국어 지원>

이 세상을 새 시대로 이끌자

포모사 시후센터 단체명상

1992년 4월 10일/ 5월 8일

<영어+5개 국어 자막>

깨달음을 얻어라

이스라엘 텔아비브 강연 1999년 11월 21일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오디오 테이프

ER21 (9개) 한국 영동 국제선육

심신을 초월해야 자유롭다(1)(2) - 2000년 5월 9일

물고기를 낚는 미끼풀 - 2000년 5월 10일

잠행하는 스승 - 2000년 5월 12일

살아 있는 성인 - 2000년 5월 11일

위대한 가르침을 나누는 법(1)(2) - 2000년 5월 12일

스승과의 내면의 텔레파시 (1)(2) - 2000년 5월 16일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 Fax: (886) 2-87870873

E-mail : sm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 19259438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의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문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참사에서 구출된 동수들

우 사저 / 미국 뉴저지 (원문 영어)

우 사저에게는 뉴욕 시내에서 일하는 아들이 하나 있다. 그는 뉴저지에서 통근하는데 아침 9시 무렵에는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자리에서 지하철을 타곤 했다. 지난 9월 11일 두 대의 비행기가 쌍둥이 건물에 충돌했을 시간대였다. 우 사저는 그 날 참사에 대한 뉴스를 보고는 스승님의 법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들이 무사하길 기도했다. 잠시 후 그녀의 아들이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웬지 오늘 아침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지하철을 탔어요” 하고 전화를 걸어왔다. 이 일은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안배하시며 제자들과 그 가족들을 항상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다른 사저는 보통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 세계무역센터 자리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출근하는데, 9월 11일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찍 지하철을 타서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그 자리에서 떠났다고 한다. 그녀는 알람시계를 끄고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아주 드문 경우였다. 사무실에서 빌딩이 폭파되는 장면을 본 사저는 이 참사에서 구해주신 스승님의 축복에 한없이 감사드렸다.

또 다른 사례

조우 사저 / 미국 뉴욕

미국 9.11 재난이 있던 날, 나는 직장에 지각했다. WTC 노스타워 46층에서 근무하는 나는 대개 8시 50분까지 도착하곤 했는데, 그 날 아침에는 조강하다 친구를 만나 얘기를 나누느라 직장에 늦게 된 것이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 건물에서 사람들이 몰려나오고 있었고, 건물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었다.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었다. 스승님의 자비로운 안배로 지각을 하게 된 나는 덕분에 그 날의 참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스승님은 이미 안배해 놓으셨다!

첸 사저 / 미국 뉴욕

9.11 사건이 발생하자, 뉴욕 센터 구조팀은 가능한 빨리 선발 구조팀에 합세하기 위해서는 구호장비를 급송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두들 도시 곳곳의 교통이 마비된 상태에서 어떻게 장비를 신속히 운송할지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스승님께서 이미 안배해 놓으셨던 것이다! 원래 뉴욕 센터의 모든 구호장비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 동수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현재 재난으로 교통이 봉쇄된 WTC 뒤편이었다. 그런데 몇 달 전 이 동수가 창고를 팔게 되어 우리 집 창고에 구조장비 일체를 임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뉴욕 구호팀

역시 우리 집을 빌려 쓰고 있던 참이었기 때문에 2001년 9월 12일 구호작업에 참여하려는 동수들이 도착했을 때는 모든 장비들이 준비된 상태였다. 만일 장비들이 아직도 차이나타운 부근의 그 창고에 있었다면, 장비를 운송하기 위해선 교통 봉쇄가 풀릴 때까지 며칠이나 더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스승님의 사랑의 선물



미셸 캔티 뉴욕 소방서 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소방관의 자녀들을 위한 스승님의 상품권 선물을 전해 받다.



어린이들을 위한 상품권을 대표로 접수한 'UFA 미망인과 자녀를 위한 기금'의 타마 레일리 여사(왼쪽에서 두 번째)

2001년 9월 11일 뉴욕에 비극이 발생하자 스승님은 동수들에게 희생자의 자녀들을 위해 온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어서 이번 재난 구조활동 희생자를 포함한 모든 뉴욕 소방관들의 자녀들에게 좋아하는 장난감을 살 수 있도록 남은 구호금을 기부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남은 37,300달러로 50달러 짜리 상품권 746장을 구입하고 각기 봉투에 넣어 뉴욕 소방서와 'UFA(소방관 협회) 미망인과 자녀 기금'에 전달했다.

10월 11일 오후 1시 30분, 동수 네 명이 뉴욕 소방서 본부에 도착했다. 본부 주변에 주차할 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스승님의 축복 덕분이었다. 맨해튼 시내에서 평일에 주차할 자리를 찾는다는 건 기적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젊은 남자 두 명을 만났는데, 그들은 일부 건물의 잔해 속에서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서 지금도 많은 소방관들이 재난 현장에 있다고 얘기했다. 이번 구조작업에서 343명의 소방관들이 순직함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친구들을 잃게 되어 가슴 아파했다.

우리는 미셸 캔티 소방대장을 만나 우리 단체를 소개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1만 8천 달러어치의 상품권과 함께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뉴스잡지를 증정했다. 그는 소방관 자녀들에게 이 선물들을 나눠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스승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우리와 기념 사진을 찍었다.

소방서에서 나온 우리는 다시 'UFA 미망인과 자녀 기금' 사무소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맞은 사람은 타마 레일리 여사였는데, 그녀는 상품권을 받고 매우 기뻐하며 아이들이 갖고 싶은 장난감과 선물을 살 수 있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어떤 사람들은 테디베어 같은 장난감을 보내오기도 했는데 보관이나 관리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레일리 여사는 우리 단체에 대해 물으면서 스승님의 가르침과 명상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녀와 한 동료는 우리의 사랑의 실천에 크게 감동하며 우리의 세심한 선물에 감사했다. 이번 방문에서 우리는 구조작업에서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의 자녀들을 위해 19,000달러어치의 장난감 상품권을 증정했다.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9.11 재난' 구호활동 지출내역

영수증 1

표1: 비영리 단체 기부금

단체 이름	지 역	금액(미국 달러)	부 록
소방관 부조 기금	미국 뉴욕	50,000.00	*
적십자사	미국 뉴욕	50,000.00	911-A
		10,000.00	*
	미국 워싱턴 DC	50,000.00	911-B
		1,000.00	*
구세군	미국 버지니아 알링턴	10,000.00	*
	미국 뉴욕	50,015.00	911-C
		10,000.00	911-D
	미국 워싱턴 DC	50,000.00	911-E
		1,000.00	*
	미국 펜실베이니아	5,000.00	911-F
생명의 전화	미국 버지니아	2,000.00	911-G
뉴욕 소방서	미국 뉴욕	18,000.00	*
UFA 미망인과 자녀기금	미국 뉴욕	19,300.00	911-H
은행 수수료		94.75	
총 액 :		326,409.75	

(주: * 처리된 영수증은 이후 잡지에 게재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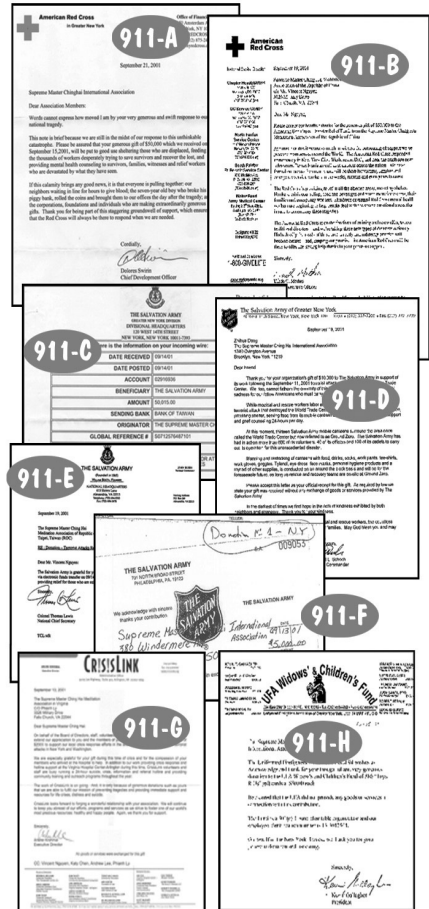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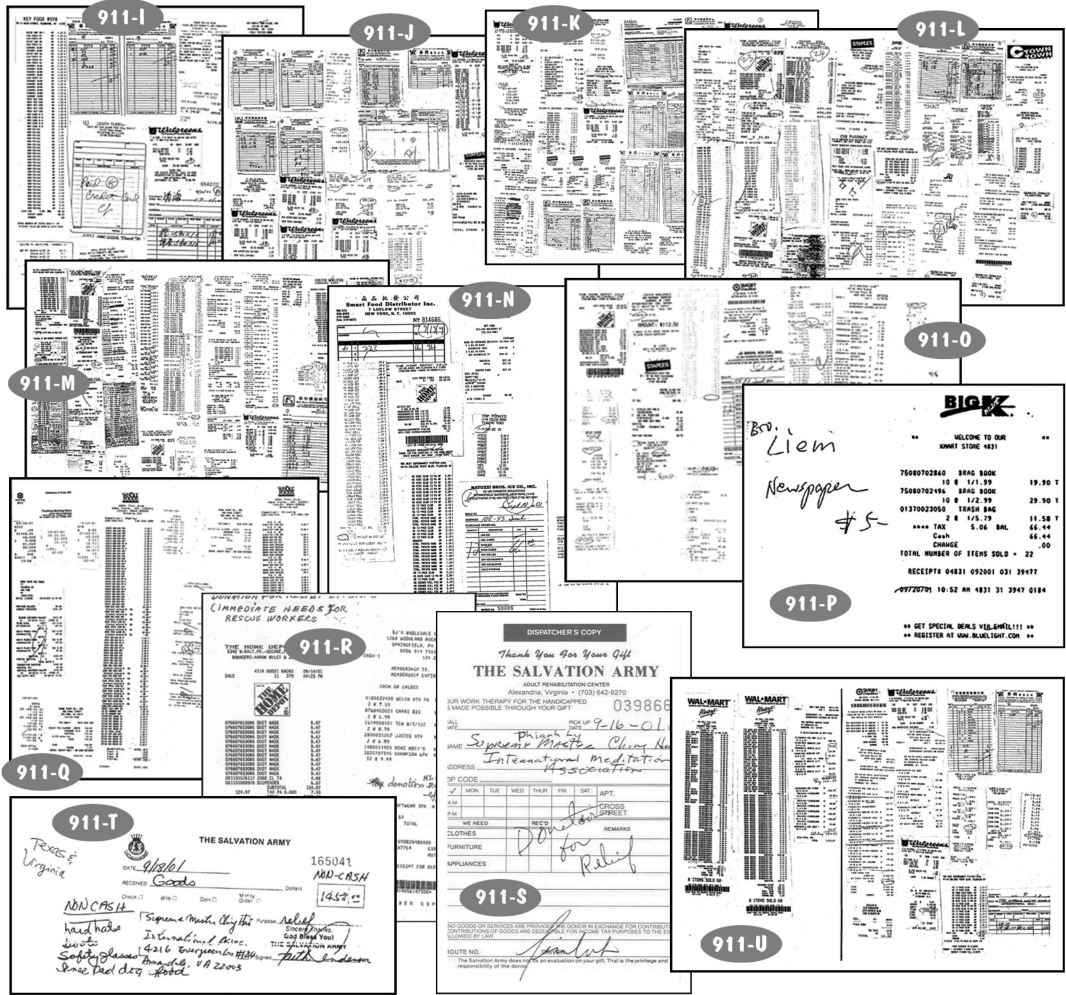


표2: 구조활동 지출내역

항 목	내 역	금액(미국 달러)	부 록
음식	쌀, 국수, 빵, 야채, 음료, 아이스 백, 우유, 밀가루 등	21,317.10	911-I ~ 911-U
의복	남성용 속옷, 양말, 셔츠, 재킷, 장갑, 이불 등	5,486.61	
사무용품	필름, 문구, 컴퓨터용 디스켓, CD, 복사용 카본, 방수포, 건전지, 프린터 잉크 등	1,450.37	
주방용품	조리 기구, 보온병, 수도 펌프, 싱크대, 커피 메이커 등	2,188.88	
잡화	쓰레기 봉투, 세제, 공구, 텐트, 손전등, 장화 등	1,746.57	
의약품	작업부츠, 보안경, 안전모, 무릎 보호대, 방독면, 약, 감기 약 등	2,458.00	
총 액:		\$ 34,647.53	
표1과 표2 총액:		\$ 361,057.28	

영수증 2



영수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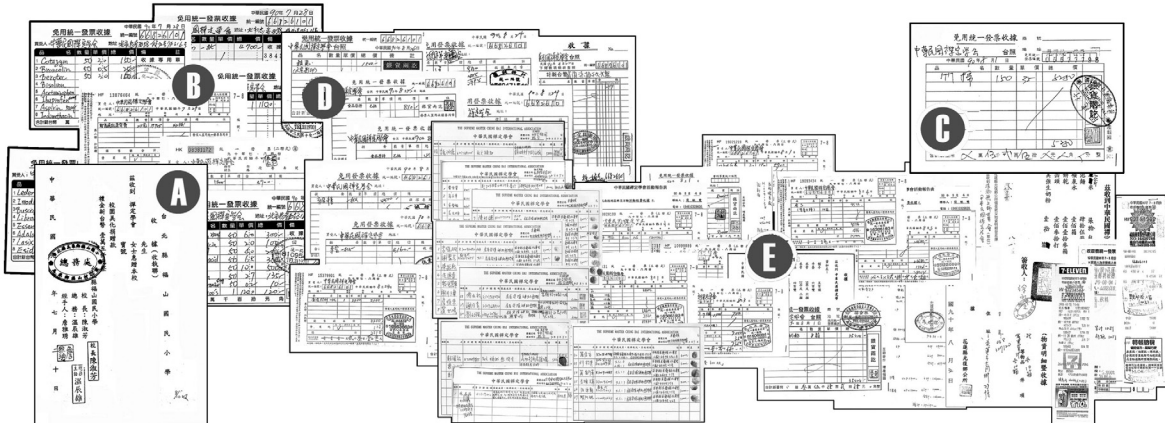


표3: 2001년 7월부터 8월까지의 포모사 각종 활동 지출내역

(단위: NT 대만 달러)

장 소	일 자	내 역	금 액	부 록
타이난	2001. 7. 19.	타이난 민더 외설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자원봉사)	0	
타이난	2001. 7. 21.	타이난시 환경보호국의 환경보호 캠페인에 동참, 청소작업 (자원봉사), 타이난 골든 코스트	0	
타이베이	2001. 7. 20.	타이베이 우라이 푸산 초등학교에서 청소년 캠프 개최, 푸산 초등학교 측에 교내 환경 보호기금 전달	15,000	A
핑둥	2001. 7. 29.	핑둥 완루안 향 신즈 촌에서 의료봉사 활동, 도로 청소를 비롯한 환경보호 활동	18,312	B
타이난	2001. 7. 31.	타이난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및 명상법 지도 (자원봉사)	0	
미아오리	2001. 8. 5.	태풍 경과 후 시후 항공소와 함께 28번 국도 청소	5,250	C
타이난	2001. 8. 18.	타이난시 환경보호국의 환경보호 캠페인에 동참, 타이난 골든 코스트 청소작업 (자원봉사)	0	
타이난	2001. 8. 18.	민더 외설 교도소 방문, 문예 공연 (자원봉사)	0	
타이난	2001. 8. 26.	행정원 정보청과 타이난 시청부가 주관한 유선방송 박람회 참가	19,367	D
화롄	2001. 8. 17.	태풍 도라지 호 이재민에게 구호물품과 성금 전달	390,692	E
			총액 : 448,621 (NT)	

표4: 2001년 7월부터 8월까지의 포모사 극빈 가정 돕기 지출내역

(단위: NT 대만 달러)

지 역	2001년 7월			2001년 8월			부 록
	가구수	금	액	가구수	금	액	
지 룡	1		2,000	1		2,000	1
타이베이	8		23,000	8		23,000	2
타오웬	1		2,000	1		2,000	3
신 쭈	1		3,000	1		3,000	4
미아오리	2		6,000	2		6,000	5
타이쭈	8		26,000	8		26,000	6
난토후	6		23,000	6		23,000	7
지아이	2		5,000	2		5,000	8
타이완	1		4,000	1		4,000	9
까오핑	5		18,000	5		18,000	10
타이둥	4		10,000	4		10,000	11
핑 후	1		2,000	1		2,000	12
월별 소계	40		124,000 NT	40		124,000 NT	
총 계 : 248,000 NT							

표3, 표4에서 보듯이 2001년 7월에서 8월까지 포모사 사랑의 활동 지출금 액은 총 696,621 NT달러에 이른다. (미화 약 20,192.91 달러)

영수증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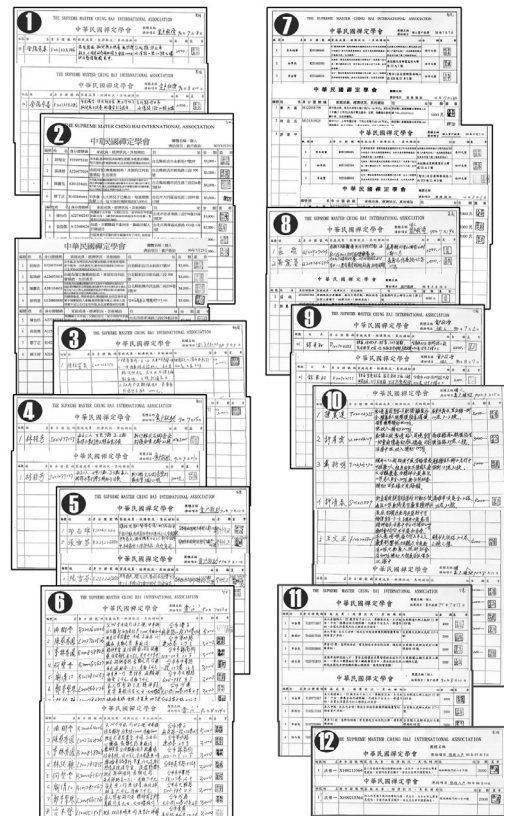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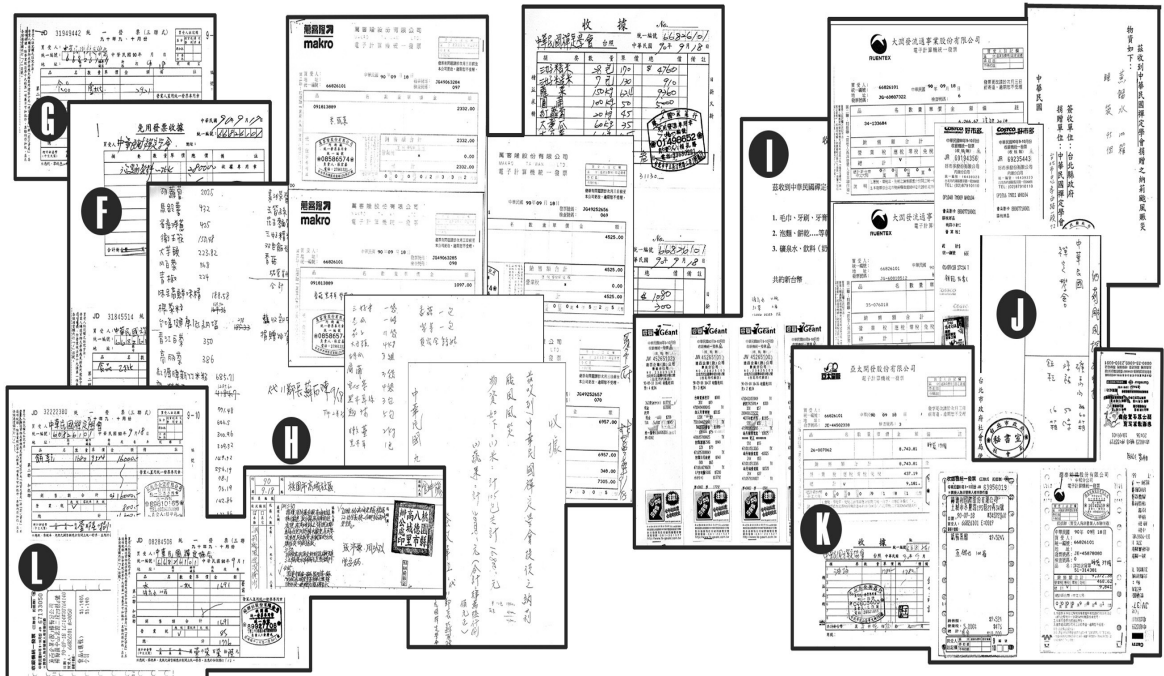


표5: 포모사 태풍 나리 호 구호활동 지출내역

장 소	날 짜	전 달 장 소	구 호 물 품	금 액	부록
지룽	2001. 9. 17.	우두 임시 보호소	생수, 과일 주스, 과자, 라면	3,720	F
	2001. 9. 18.	딩나이 중학교 임시 보호소	생수, 과자	3,067	G
	2001. 9. 18.	우두 시안 임시 보호소	쌀, 야채, 과일, 기타 부식	62,114	H
타이베이	2001. 9. 18.	동후 초등학교 임시 보호소 네이후 소방서 성공대	생수, 음료, 과자, 라면, 화장지	17,792	I
	2001. 9. 18.	타이베이 시청 (사회 복지부를 통해 이재민에게 전달)	생수, 과자, 이불	46,482	J
타오웬	2001. 9. 18.	타이베이 현 반치아오 체육관	증류수, 침낭	37,795	K
	2001. 9. 18.	까오칭 부락 (이장을 통해 이재민에게 전달)	생수, 과자	19,716	L
총 액 : 187,685 NT (미화 약 5,435.45 달러)					

영수증 5





영웅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

한 명상 단체에서 쌍둥이 건물 구조대원들에게
지원과 위로를 전하다

글: 자유 기고가 존 토마스

포레스트 힐의 한 집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구조 팀의 본부가 되었다. 이 단체는 지난 9월 13일부터 구조 대원들을 위해 따뜻한 채식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천 연쩍 씨(50세)의 집 앞에는 갖가지 야채와 과일, 커피, 주스들이 가득 펼쳐져 있고 집 옆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줄지어 들어서 있다. 그리고 뒤뜰의 천막으로 된 임시 주방에서는 식사를 준비해 포장한다. 화물차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부식을 조달하고 다시 도시락과 작업자들을 싣고 재난구조 현장 바깥에 위치한 2곳의 부스로 운송한다. 이 부스들은 하루 24시간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집 2층에 마련된 지휘본부는 칭하이 무상사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칭하이 무상사는 9.11 사건이 발생하자 회원들을 통해 3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이 금액의 대부분이 적십자사와 구세군에 전달되었다. 또한 칭하이 무상사의 지시 아래 많은 회원들이 노스캐롤라이나같이 먼 곳에서도 차를 몰고 와 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천 씨의 딸들인 알리스(15세)와 오드리(14세)는 청소와 전화받는 일을 하며 돕고 있다. 천 씨는 딸들의 이런 모습을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는 한 과정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충격으로 몹시 슬퍼했습니다.” 9.11 재난에 대한 딸들의 반응에 대해 천 씨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의 부모들이 죽었지요. 이 일을 도우면서 아이들의 상태가 나아졌어요.”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희생자들에게 전합니다.” 총 구조대장인 지화 동 씨(36세, 브록클린 거주)의 말에 이어 또 다른 구조대 간부인 환충 리 씨(49세, 보스턴 거주)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구조대원들은 12시간 교대로 일하는데, 그들이 쉬는 이유도 단체명상에 참석하기 위해서이다. 새로운 대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리 씨는 곧 1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회원들이 구조작업 대원들을 위한 따뜻한 무료 채식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존 토마스)

재난 구조활동 뒤의 영웅들

태풍의 밤,
그들은 생명을 담보로 일대 도박을 하다

수륙양용차를 타고 많은 인명을 구한 중화 수륙구조협회 대원들
이재민들의 감사를 사양하다

“태풍 나리 호가 불던 밤, 우리 다섯 식구는 우두 인터체인지 부근에 고립되어 있었다. 1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마침내 소방선이 보였고, 우리 가족은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시토후 가(街) 위 지엔주 씨의 말이다. 두난의 린 요밍 씨 일가 여섯 식구들 또한 그들 표현대로라면 ‘수중 소방차’를 타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표현한 이 구조장비는 사실 쟁 안팡 씨가 고안, 제작한 수륙양용차인데, 태풍 이재민들은 중화 수륙구조협회의 활동으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6시간이나 계속된 집중호우 동안 구조협회는 바이푸 부락과 두난 일대에 고립된 80여 명의 이재민을 구하고, 그 중 일부를 협회 총 지휘관인 린 한창 씨가 운영하는 시안 요양소로 대피시켰다. 이들에 대한 영웅적인 이야기는 재해 지역에 순식간에 퍼져 나갔고 많은 이재민들이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했지만, 구조대원들은 뒤로 숨어 어떤 공로도 내세우지 않았다.

한 구조대원은 태풍이 불던 그날 밤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의 격랑’이란 표현을 썼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꺼이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했던 것이다. 한 대원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한 어머니와 딸이 다소 높은 지대에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그들을 차로 끌어당겨 최대한 신속하게 광원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스포츠라이트로 비춰보자 흰색 안전모가 보였습니다. 그건 누군가 갇혀 있다는 뜻이었지요. 주변을 다시 둘러보니 키가 큰 한 남자가 물이 턱까지 찬 상태에서 두 손으로 처마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가까이에는 검은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물에 뜬 나무 조각에 서 있었어요. 우리 수륙양용차가 다가가자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에 기쁨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구조대원은 “이봐요,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치 귀신이 울부짖는 소리 같았다고 한다. 수재민들 중에는 도움을 받으려는 희망으로 아주 희미한



중화 수륙구조협회 총 지휘관인 린 한창 씨(왼쪽)가 운영하는 요양소 역시 1, 2층이 물에 잠겼지만, 3층 이상부터는 50여 명의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로 쓰고 있다.

(사진 - 리 후이산 기자)

전등불을 보내기도 했다. 그 중 한 함석집에는 한 사람만이 옥상에 서 있고 나머지 다섯 사람은 집안에 갇혀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우선 자신을 밧줄로 묶은 후 잠수하여 집에 도착한 후 이재민들에게 숨을 멈추고 눈을 감은 채 잠수할 것을 설득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구조될 수 있었다. 아이를 등에 업은 한 임산부는 집 이층에 갇혀 있었는데, 물이 점점 차 오르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임산부와 아이를 구하기 위해 4, 5명이 한 줄로 올라타 ‘인간 벽’을 만들었다. 다른 이재민들은 이 위험한 모습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는데, 마침내 구조가 성공하자 모두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구조협회 회원들은 칭하이 무상사를 따르는 동수들로 자체 기금을 조성해 일체의 구조장비를 갖추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구조방법을 개발해 훈련하는데, 재난 현장에서 보여 준 그들의 모습에서 일류 전문 구조대원임이 증명되고 있다.

미국 오클랜드 트리뷴 (발췌)

2001년 9월 25일 목요일자 (원문 영어)

어울락 가족이 적십자사에 성금을 전하다

‘골든 로터스’에서 뉴욕 재난 성금으로
1,750 달러 모금

알렉스 카츠 기자

[오클랜드] 오클랜드 시내의 골든 로터스 채식 식당은 지난 월요일부터 모인 영업 수입 1,750 달러를 적십자사에 기부했다. “이것은 당연한 도리이며,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골든 로터스의 운영자 낸시 당 씨의 말이다. 1996년 프랭클린가(街) 한쪽에 식당을 개업한 당 씨 가족들은 뉴욕 구조대원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한 종교단체에 다시 1,500 달러를 기부했다고 말했다.

당 씨 가족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라는 종교단체의 일원들인데, 이들은 이 단체를 매일 2시간 반 명상을 하는 명상단체라고 소개했다. 당 씨 가족은 또한 정기적으로 세계 각지에 재난 구호기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낸시의 아버지 우트 당 씨는 통역을 통해 “우리는 희생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이 줄도록 도우면 나의 고통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당 씨는 이에 덧붙여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쟁이 발생하면 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Quan Yin Web Sites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영어,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인도네시아어)
<http://members.mweb.co.th/godsdirectcontact/> (태국-태국어)
<http://www.spiritual-discovery.org/> (미국-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간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spiritweb.org/Spirit/media.html?who=Suma%20Ching%20Hai>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 다국어 지원)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Real Audio 지원,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uk/> (영국-페르시아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 (헝가리-헝가리어)
<http://Godsdirectcontact.bizland.com/> (스웨덴-스웨덴어)
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 (폴란드-폴란드어, 영어, 어울락어)
<http://www.contactdiretocom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이메일로 잡지를 받아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아프리카

★ 베닌	센터	229-30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센터	237-865026 smcameroon@yahoo.com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55-00-46 atmoske@yahoo.com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더반	Mr. & Mrs. Suresh Patel	27-31-262-5111 surindie@intekom.co.za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Mr. Gilbert Kamgain	27-82-754-3840 gkamgain@yahoo.com
	Mrs. Tracey Ho	27-11-6402085 sahjbcenter@pchome.com.tw
★ 토고	팔리메 센터	228 410 948
	로메 센터	228 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 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lukiise@yahoo.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maurice@email.com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essence@intnet.mu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mak@sminter.com.ar
★ 볼리비아	산타 크루즈	Mrs. Adalina da graca Munoz 591-337-2039 adamun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9414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 파울루	센터 55-11-5579-1180/3884-3155 연락인 사무실 55-11-227-4690/228-7029 brcenter@hotmail.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295992 ezapata@entelchile.net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 & Mrs. Jose Guzman Alonso 57-1-2261245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87-4516 laurachenr@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r.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파나후화토	Mr. & Mrs. Jose Luis Sanchez Vargas 52-4-7436120
멕시코칼리	Ms. Sylvia Lagrange	52-65-684575 quanyin@telnor.net
멕시코DF	센터	52-5-752-7472/5639-3506 kamel@avantel.net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852-1256 tecenter@ragnatela.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78387 mtty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bett@hotmail.com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Ms. Maritza E.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파라과이	C.D. 이스트	Mr. Zhi-Lu Tsao 595-61-502034 jscmike@fnn.net
★ 페루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entro@yahoo.com
	리마	센터 51-1-4716472 lvalencia@terra.com.pe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chinghailimaperu@hotmail.com
	Mr. Victor Carrera	51-1-2657429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larv@terra.com.pe
★ 살바도르	산 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 트리니다드 아일랜드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tt.net.tt
★ 캐나다	에드몬톤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1@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nguyenthehung40@hotmail.com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Mr. Le Lam	1-613-260-1698 lam,le-quanyin@home.com
	Mr. Armand Laplante	1-613-745-6050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97-0650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home.com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aicompro.com
	Ms. Sheila Coodin	1-604-739-6758



sheila@prismnet.bc.ca					jfontenot@hotmail.com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메사추세츠 :			
★ 미국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애리조나 :	센터			shinemound@earthlink.net	
	1-623-581-0725	Ms. Gan Mai-Ky			1-508-791-7316
	ArizonaCtr@aol.com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매릴랜드 :			
아칸소 :	Mr. Robert Jeffreys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1-501-253-8287	HughMDCenter@yahoo.com			
	bobj@arkansas.net	Mr. Robert Ectman			1-301-972-5654
캘리포니아 :		bce94@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미시간 :	Ms. Susan Manturuk		1-616-588-6341
센터	1-909-674-7814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quach001@juno.com	
tillin54@hotmail.com		미주리 :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SanGabriel99@hotmail.com				MSteck5208@aol.com	
Ms. Tina Polny	1-714-960-4518/960-4568	*롤라	Mr. Genda Chen		1-573-368-2679
qin-na.polny@mindspring.com				gchen@umr.edu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402-483-4067
	1-916-682-9540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ctrobert@yoda.unl.edu
Saccenter.ca@usa.com		네바다 :			
*샌디에이고 센터		*라스베가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1-619-280-7982	뉴저지 :	센터		1-973-209-1651
quanyinsd@juno.com				c_newjersey@yahoo.com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Mr. & Mrs. Nghiem The Trung			1-609-667-3829
Mr. & Mrs. Tang Thi	1-619-268-8651	albert_nghiem@hotmail.com			
*샌프란시스코		Mr. Chang-Sheng Chou			1-973-335-5336
센터	KHOALUONG@aol.com	JohnChou@ymlusa.com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뉴멕시코 :	Mr.&Mrs. Nawarskas		1-505-822-1560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뉴욕 :		anawarskas@hotmail.com	
sfcenter@hotmail.com					
*산 호세	Ms. Sophie Lapaire	Mr. & Mrs. Zhihua Tung			1-718-837-4884
	1-650-988-6500	dong@phys.columbia.edu			
Sophie.Lapaire@eng.sun.com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success@coachdebra.com	
Edgar-Teresa@worldnet.att.net		노스캐롤라이나 :			
Mr. Loc Petrus	1-510-276-4631				
petrusl2k@earthlink.net		오하이오 :			
Mr. Jim Su	1-408-253-8516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sumajim@aol.com		von@swoca.net			
Mr. James Kiet Le	1-408-262-8233	Mr. Gilbert Rivera			1-513-381-4554
James_Le@adaptec.com		widmeyer@aol.com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1-303-986-1248			LTRAN2292@aol.com	
torahi@juno.com		오리건 :			
플로리다 :		*포틀랜드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케이프 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펜실베이니아 :			
Ms. Trina L. Stokes	1-941-482-7542	Mr. & Mrs. Diep Tam Nguyen			1-610-626-5546
tls77@aol.com		Diep.Ngu.PA@juno.com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1-407-333-0178	텍사스 :			
ekalbekim@yahoo.com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조지아:	센터/ Bhiksuni Chan Mo			jwul@austin.rr.com	
	1-770-936-9926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GeorgiaCnt@aol.com		tranduongdean@yahoo.com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1-214-339-9004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달라스	센터		
하와이 :	센터				
	1-808-735-9180	Mr. Tim Mecha			1-972-395-0225
hawaiictr@hotmail.com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lamtran@hotmail.com					
Mr. & Mrs. Sang-Yoon Lee	1-773-261-4033				
ilovesuma@hotmail.com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duchanh@aol.com					
켄터키 :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NGUYEN@MAIL.STATE.KY.US					
루이지애나 :	Mrs. Jon L Fontenot				
	1-504-483-3234				

	Mr. Weidong Duan	1-214-528-9178 water96@yahoo.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73084 ahimsasb@indosat.net.id
	Mr. Jimmy Nguyen	1-972-206-2042 DallasCenter@hotmail.com		Mr. Harry	62-31-594-5868 harry_1@sby.dnet.net.id
*휴스턴	센터	1-281-893-8300	마젤랑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roltex@interserv.com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370-3898 DNgyuen376@aol.com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obert.Yuan@Compaq.com	욕야카르타	Mr. Augustinus	62-274-588-105 tadianingtyas@eudoramail.com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6088	★ 일본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truelove@mtb.biglobe.ne.jp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ly@dotplanet.com	구마모토	Ms. Mochinaga Eiko	81-96-346-2928 genesis@mb.infobears.ne.jp
*버지니아 비치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cal13840@pop07.odn.ne.jp
	Mr. David Young	1-757-588-8468 davidkyoung@hotmail.com		Mr.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워싱턴 :			★ 한국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007@hotmail.com	출판사		02-2202-8090 chinghai@unitel.co.kr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quanyim@unitel.co.kr
*요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오종철	02-5755080
★ 푸에르토리코				유태인	02-7953927
카뮈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_@caribe.net	부산	이지자	02-599-1701
샌주안	Ms. Shanti Ragyi	1-787-723-7138 shantiragyi@hotmail.com		부산 센터	051-5819200 quanin@konet.net
				송호준	051-9574552
				황상원	051-8057283
				이원석	051-8946645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신현창	063-2545824
			인천	인천 센터	032-2441250
				이재문	032-244-1250
			대구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김익현	053-6333346
				한선희	053-7675338
				차재현	053-8563849
			대전	대전 센터	042-6254801
				김수동	042-2547309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조명대	062-9716559 jomd@hanmail.net
			안동	안동 센터	054-8213043
				김삼태	054-8734961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unitel.co.kr
			제주	제주 센터	064-996113
			★ 마카오	센터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 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 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3516075 supreme2@tm.net.my
			칼라룸푸르	센터	60-3-9873904 klsmch@tm.net.my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klgcp@hotmail.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pd.jaring.my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 몽고

올란바토르 Mrs. Luvsan Tsengel 976-11-344604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3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Mr. Ajay Shrestha 977-1-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28144

chinghai2000pokhara@hotmail.com

Mr. Bishun Neupane 977-61-21201

neupanebishnu@hotmail.com

Mr. Shiva Bastola 977-61-28255

pokharacenter@hotmail.com

Mr. Raj Jumar Lama 977-61-31413

마닐라 센터 632-433-9248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센터 65-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연락인 사무실 65-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s. Suranganie Dayaratne 94-1-760927

jean@sol.lk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4

bkk_c@hotmail.com

Ms. Laddawan Na Ranong 662-5914571

edasnlad@samsorn.stou.ac.th

Mr. Wu Peir Yuan 66-1-8248294

치앙마이

센터 66-53-217080

Ms. Siriwan Supatrachamnian 66-53-387126

하야이

센터 66-74-368329-30(c/o 155)

콘캔

센터 66-43-261878

Mr. Paisal Chuangcham 66-43-241718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sound@gmx.at

★ 벨기에

브뤼셀 Mr. Hugo Berton 32-1640-0377

universal@planetinternet.be

★ 불가리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oldruslan@yahoo.com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36-3031

prague-center@chinghai.cz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Chinghai@chinghai.cz

★ 그리스

아테네 Mr. Mr. Eric Raza 30-01-6923-133

Razahidah@hotmail.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덴마크

연락인 사무실 45-66-190459

★ 핀란드

헬싱키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hoanghanh.luong@luukku.com

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iobox.fi

★ 프랑스

파리 센터 33-1-4300-6282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ilancelot@celestialfamily.net

Ms. Ngo Thi Huong 33-1-424-31924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 독일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berlincenter@hotmail.com

Mr. ChristianBastwoeste 49-30-3470-9262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5232-68564

49-174-5265242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Vothuong5@cs.com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heaven.bud@mail.matav.hu

Mr. Lux Tamas 36-309-611994

Ms. Dora Seres 36-1379-1924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berardleech@unison.ie

★ 노르웨이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tnguyen@c2i.net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091-4874953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quanyin@home.pl

로드즈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czakra@interia.pl

★ 포르투갈

리스본 Mr. Helder Hen Keon Kong 351-21-920-4118

lisbon_center@notmail.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 슬로베니아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 스페인

마드리드 센터 34-91-5470366

Ms. Lidia Kong 34-91-7756670

Mr. Wang Ya-King 34-95-2351521

말라가

Ms. Xi-Chun Wang & Ms. Xin-Lan Yang 34-96-3336208

발렌시아 채식 식당 34-96-3744361

Mr. Yu Xi-Qi 34-96-3726401

valenciachinghai@yahoo.es

★ 스웨덴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hang.nguyen@spray.se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말피	Mr. & Mrs. John Wu	widlund@hem.utfors.se	46-40-973452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스톡홀름	Mr. Mats Gigard	mats.gigard@telia.com	46-8-882207	마이런 베이/노던 리버스	612-6685-3248
웁살라	Ms. Premila Perera Ivarsson	premila-perera@pharmacog.uu.se	46-18-302029	Mr. & Mrs. Ray Dixon	612-6685-3248
★ 스위스				rayandjulie@linknet.com.au	612-6259-1993
제네바	Ms. Feng-Li Liu	gefliu@yahoo.com	41-22-7973789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Ms. Klein Ursula	41-22-3691550		smcanbra@cyberone.com.au	613-9890-0320
★ 영국				Melbsmch@aol.com	613-9585-7871
스트록온트렌트	Mr. Janet Weller	family@weller142.fsnet.co.uk	44-1782-414989	Mrs. Rosemary Nagtegaal	613-9470-4573
런던	센터	44-208-3742743		Mr. Pham Van Bon	61-3-9857-4239
	연락인 사무실	44-207-4731421		Mr. Alan Khor	61-8-9242-1189
		pnl@matters19.freemove.co.uk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서리	Mr. Hu Tchang Rong	44-1293-416698		daveb@inet.net.au	61-8-9244-7661
		stmchwo@hotmail.com		Mr. Ly Van Tri	612-9477-5459
★ 스코틀랜드				Mr. Eino Laidsaar	61-2-97887588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Mr. Hong Bo	61-3-62293878
		lillig@btinternet.com		hongbo_huang@hotmail.com	61-3-62293878
글래스고	Mr. Robert Jackson	44-141-637-7255		태즈메이아	649-419-4470
		Robert.jackson@classicfm.net		★ 뉴질랜드	nzanton@yahoo.com
				오클랜드	649-277-9285
					takahide@xtra.co.nz
*** 오세아니아 ***					649-266-6898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Mrs. Chanwu Wong	64-3-3436918
브리즈번	센터	617-3374-3339		크라이트스트치	chaomim@hotmail.com
		briscentre@hotmail.com		Mr. Michael Lin	647-849-4442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해밀턴	glenprime@hotmail.com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타우랑가	647-544-5268
		ctieng@dme.qld.gov.au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 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미국)

SM 경서조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43 / 886-943-802829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LA센터 경서팀

이메일: vole@earthlink.net
팩스: 1-909-738-9992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s34.hinet.net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26

뉴스그룹

이메일: lovesrc@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unitel.co.kr
전화: (82) 2-2202-8090
팩스: (82) 2-2202-8091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 가능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mril@Kornet.co.kr
전화: (82) 54-532-5821
팩스: (82) 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천국과 같은 주방

치우 형편 사저 / 포모사 타오웬

1999년 11월 나는 온 좋게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국제 선상에 참가할 수 있었다. 원래 참가할 수 없었던 나는 스승님의 놀라운 안배로 주방 팀에 합류해 영적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순조롭게 일하며 내면의 기쁨에 빠졌다.

일하는 동안 주방에서 동수들이 선입견과 습관을 내려놓고 무아의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순간 주방은 내게 천국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익숙한 장면을 통해 나는 이 느낌이 내 마음 깊은 곳의 진동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즉 명상과 꿈속에서의 체험이 현실화된 것이었다! 계속된 고양감으로 나는 육체에서 정신으로, 다시 순수한 의식의 경지로 올라가다 마침내는 영적 경지로 상승되어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다.

세계 각지에서 온 동수들이 그것도 생판 낯선 곳에서 얼마 안 되는 도구와 시설로 갖가지 채소를 훌륭한 요리로 만들어 내는 모습이 상상이 가는가? 이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동수들의 무아의 봉사와 협동심으로 이 모든 일을 훌륭히 수행해 낼 수 있었다. 모두 온 마음을 다해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는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도마 위에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칼 소리는 웅숭음치는 온천처럼 좋은 음악이었으며, 그때 느낀 행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아주 평범한 일에도 특별한 보물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뜻과 마음이 성실하고 깨끗하며 기쁜 마음으로 헌신한다면, 아무리 과정이 힘들어도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일하는 동안 신발이 다 닳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피곤해도, 다음날 새벽이면 온 힘을 끌어 모아 다시 내 자리로 일하러 갈 수 있었다.

내면의 순수함과 천성을 알게 해 준 존경스런 모든 작업 파트너들에게 감사하며, 내게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자신에 대한 도전과 자아를 초월하고자 하는 갈망을 만족시켜 주신 스승님의 안배에 더욱 큰 감사를 드린다.

육체적 장애를 넘어

샘 사형 / 포모사



1999년 남아공 케이프타운 국제선은 내게 있어선 첫번째로 참가한 국제선이자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캠프장과 눈부시게 푸른 하늘,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 예의 바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리고 간간이 터지는 참가자들의 웃음소리들은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군을 제대한 후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서 그런지 스승님과 아주 가깝게 느껴졌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웠던 일은 선 행사를 일주일 앞두고 단체명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일어난 사고였다. 과속하던 한 학생의 오토바이가 방향을 잘못 잡아 내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했는데, 내 왼쪽 발가락이 부러져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때 선 행사를 포기하려고 생각했지만, 한 동수의 말을 듣고 용기가 생겨 선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일이 중요한지 사소한지는 자신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렸다.” 이 조용하고 엄숙한 말 한 마디는 스승님이 그를 통해 전하시는 메시지였다.

사고가 난 후 며칠 동안 나는 일상생활에서 상처의 고통에 연연해하지 않도록 나를 단련시켰다. 선 행사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돌볼 수 있길 원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사고가 난 지 나흘째 되던 날에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남아공 선 기간에는 아무런 도움 없이 걸을 수 있었으며, 심지어 넓은 캠프장 사방을 누비며 캠프장 장식을 도울 수도 있었다! 선 행사가 끝나자, 내 발가락은 정상적으로 돌아와 평소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선을 통해 스승님은 내게 세상 속에서 천국을 맛보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장애 또한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셨다.

가을 바람을 바람의 노래

서풍이 낮게 읊조릴 때 흘날리는 꽃잎이 대지를 덮고
연꽃의 연꽃들은 밤새 씨앗으로 변했네
오스만투스 향 가득하고 단풍잎도 흔들거리는데
황금 밀밭 속에 풍요가 보이는구나

가을 바람이 불면서 어느새 서늘한 계절이 돌아왔다. 사랑하는 우리 스승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사려깊게 우아하고 고상한 가을 의상들을 디자인하셨다. 낭만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이 옷들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소박하면서도 매혹적인 색채를 더해준다.

남성복

1. 꽃무늬 긴 바지: 레이온으로 제작된 편안한 긴 바지. 탄력 있는 허리 밴드에 통풍과 땀 흡수가 우수하며 가볍고 촉감이 부드럽다. 갈색 계통의 색조에 연꽃 무늬가 세로로 들어가 있다.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룬다.
2. 긴 팔 폴로셔츠: 높은 깃에 소맷부리가 탄력 있음. 가슴 위쪽에 SM 로고가 새겨져 있고 앞 부분에 가로 줄 무늬가 들어가 있다. 은은하고 고상한 베이지 색과 파스텔 그린의 두 종류. 사무실과 야외, 모든 장소에 적합하며, 순면 소재에 양면광택 처리를 해 촉감이 특히 부드럽다.



숙녀복

1. 꽃무늬 블라우스: 화려하고 매력적인 무늬의 새로운 디자인 3종류. 편안함을 위해 옆 트임을 주었다.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져 통풍이 잘 되고 구겨지지 않아 다림질이 필요 없다.



2. 면, 마 바지 세트: 셔츠 칼라에 7부 소매,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길이. 소재는 면과 마, 두 종류이며, 전체적으로 순면 소재에 연 노랑, 순마 소재에 파랑과 파스텔 자주, 세 종류. 은은하고 부드러운 색상이 매력적이다. 이 두 시리즈에 맞는 바지는 순마 소재에 밝고 우아한 꽃무늬가 들어가 있어 스타일이 매우 로맨틱하다.



3. 티셔츠: 크루넥, 신축성이 강한 몸에 딱 맞는 반소매 티셔츠, 재단이 깔끔하고 색상이 화려하다. 시각 무늬가 두 가지 톤으로 들어가 있어 매우 입체적이다.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져 입기 편하며, 구겨지지 않아 다림질이 필요 없다.



무상예술

선 예술의 신세계

김 영택 사형/ 한국 서울 (원문 한국어)

나는 수많은 전시회를 참관한 바 있다. 전시회에서는 보통 작가의 내적, 영적인 세계가 반영되기 마련이다. 또한 예술가들은 주로 사용하는 재료와 연출 기법에 따라 무수한 범주로 분류되고 각자 독특한 예술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칭하이 무상사의 작품은 차별적인 다양성을 갖고 있다. 그녀는 오일이나 파스텔 등 재료 선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표현주의나 인상주의와 같은 장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보통 예술가들이 예술에 대한 자기 고유의 관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반면, 스승님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그림으로 나타낸다. 스승님의 그림에 드러나는 탁월한 표현기법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화가들이 풀이나 꽃, 잎사귀 등 자연 그 자체의 풍경만 그리는 데 반해 스승님은 보다 정밀하고 복잡한 기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단순한 기쁨(Simple Joy)’의 경우 잡초의 마디마디가 세밀히 묘사되어 있고, ‘마음의 꽃은 시들지 않는다’에는 감탄할 만한 표현기법이 사용되었다. 놀라운 것은 스승님의 그림에는 이 두 가지 주제가 한 번씩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특징 때문에 스승님의 표현 형식은 ‘부처의 재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모니불은 구도의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것을 최고의 가치로 강조했다. 칭하이 무상사는 제자들과 일반 대중에게 ‘사랑을 통한 깨달음’을 이런 시각적인 방식을 통해 전달한다. 스승님의 그림 속에 선명히 나타난 심오한 내적 영감과 생생한 상상력은 그림을 감상하는 영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칭하이 무상사는 크게 깨달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 들에는 눈에 보이는 형태 뿐 아니라 무형의 영적인 힘이 담겨 있다. 그림을 감상하는 이가 어느 정도 영적 수행이 된 사람이라면, 이른바 ‘가피’라고 하는 부처의 힘을 체험할 것이다. 물론 수행자가 아닌 그 누구라도 고요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림을 대한다면, 역시 이런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

*주-글쓴이인 김 사형은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한국 디자인 대상을 수상했다. 1993년에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마크 센터에 의해 ‘세계의 그래픽 디자이너 54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의 주요일간지인 중앙일보에 예술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